



Autumn. 2014. Vol.14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usic

음악대학소식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Vol.14

Contents



10
한계를 뛰어넘는 열정_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8_ 가장의 귀환_아쉬케나지 듀오 리사이틀
10_ 퀸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성악 부문 1위_황수미 인터뷰

14
Masterpieces by SNU
12_ 미래의 주역들, 그 도약의 무대_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4_ 열정이 깃든 무대_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교내정기연주회
15_ 국악연주자로서의 힘찬 도약_국악과 신입생 환영 연주회, 신입생 연주회
17_ 전통, 봄처럼 돌아오다_국악과 봄 정기연주회
18_ 대만, 전통의 재해석_국악과 중국문화대학 교류연주회

22
리뷰 & 리포트
22_ 현대 러시아를 듣다_(STUDIO2021)/소피아 구바이둘리나
25_ 음악의 깊이를 더하다_2014 International Piano Academy

26
사회와 함께하는 음악대학
26_ 산조음악의 세계_관악사 음악회
28_ 서울대 가족과 관악구민을 위한_화요음악회

30
변함없는 음악가의 길-정년퇴임교수 인터뷰
국악에 대한 사랑으로/황준연 교수

32
감사합니다
발전기금 출연자 명단

04
인사의 말씀

06
주요행사
06_SNU Symphony Orchestra Regular Concert
08_Vladimir & Vovka Ashkenazy Duo Recital
10_The Winner of the Queen Elisabeth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_Sumi Hwang

12
Masterpieces by SNU
12_SNU Philharmonic Orchestra Regular Concert
14_SNU Symphony Orchestra Campus Concert
15_Freshmen Concert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17_Spring Concert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18_Exchange Concert of Chinese Culture University of Taiwan

22
Review & Report
22_STUDIO 2021_Sofia Gubaidulina
25_2014 International Piano Academy

26
College of Music Outreach
26_Gwanaksa Concert_“World of Sanjo Music”
28_SNU Tuesday Concerts

30
Interviews
Prof. Hwang Jun-Yon, Retiring Professor

32
Appreci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34
강의실을 찾아서
34_ 희망의 연주를 꿈꾸는 나무들_국악 관현악/임재원 교수
36_ 진심과 성실함으로 이뤄낸 음악의 산교육_피아노 구조 및 관리/정재봉 강사

38
콘서트를 찾아서
베토벤과의 동행_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시리즈/최희연 교수

40
음악대학 연구프로젝트 탐방
2013년도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 선정과제_한국의 문화적 무늬(MUNI)를 찾아서

42
언덕방
42_ 잊지 않겠습니다_김정자 명예교수님 추모글/이지영 교수
44_ 제트 분수처럼 제네바 하늘을 찌른 한국의 목소리_토대연구 스위스방문기/이장직
46_ 책 읽는 음악가_독일인의 사랑(막스 뮐러)/박성우
48_ 4인4색의 그들_학생 연주팀/울 스트링 콰르텟
50_ 소리를 감싸는 울타리_학생 연주팀/소리울

52
졸업생을 찾아서
우리의 소리를 세계에 알리는 그날까지_경기도립국악단/박경숙

53
박사논문 소개
죄르지 쿠르탁의 피아노작품집 《아테콰》 연구/홍인경

54
브라보! 프라이즈 워너

56
학과&연구소 소식
56_ 교수 동정
64_ 학과 및 연구소 소식



04
Dean's Message

06
Main Events
06_SNU Symphony Orchestra Regular Concert
08_Vladimir & Vovka Ashkenazy Duo Recital
10_The Winner of the Queen Elisabeth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_Sumi Hwang

12
Masterpieces by SNU
12_SNU Philharmonic Orchestra Regular Concert
14_SNU Symphony Orchestra Campus Concert
15_Freshmen Concert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17_Spring Concert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18_Exchange Concert of Chinese Culture University of Taiwan

22
Review & Report
22_STUDIO 2021_Sofia Gubaidulina
25_2014 International Piano Academy

26
College of Music Outreach
26_Gwanaksa Concert_“World of Sanjo Music”
28_SNU Tuesday Concerts

30
Interviews
Prof. Hwang Jun-Yon, Retiring Professor

32
Appreci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04
Classroom
34_ Korean Music Orchestra/Prof. Lim, JaeWon
36_ Piano Construction and Maintenance/Mr. Jung Jae Bong

38
Searching for Concert
Beethoven Piano Sonata Series_Prof. Hie-Yeon Choi

40
Expedition into College of Music Research
Finding Cultural MUNI(Pattern) of Korea

42
Essay
42_ Commemoration of Professor Emeritus Seon-Hwa Kim/Prof. Yi Ji-young
44_ Travel Essay_Switzerland/Dr. Jang-jik Lee
46_ Book Review_Deutsche Liebe by Max Muller/Seong U Bak
48_ Four Ladies, Four Colors/YUL String Quartet
50_ Fence that Wraps around the Beauty of Sound, SORIWOOL

52
Finding SNU Alumni
Gyeonggi Provincial Traditional Music Orchestra/Mistress of Haegeum Park, Kyoungsook

53
About Dissertation
Research on György Kurtág's <Játékok>/In Kyung Hong

54
Bravo! Prize Winner

56
Academic Activities
56_ Faculty Activities
64_ Wrap-up News

인사의 말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음악대학 소식지가 새롭게 발간되었습니다.

음악대학의 역동적인 활동이 담긴 이번 소식지에는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보여주신 여러 교수님의 모습과 자신의 기량을 연마하고자 성실하게 매진하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음악대학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대학의 많은 교직원 여러분께서 열정과 지혜를 모아 노력하셨기에 이제 음악대학은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 음악대학은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섰습니다. 음악대학 학제 개편을 시작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미래의 비전을 계획하고 실행하려 합니다. 또한 재능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구축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은 내실 있는 음악인을 배출하는 국내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9. 1

음악대학 학장 김귀현



N

Dean's Message

A new SNU College of Music Newsletter has been issued, entering the season of abundant harvest.

In this newsletter, full of the vigorous and dynamic activities of the SNU College of Music, you will be able to meet our wonderful faculty. Each shows their best abilities in their field, as well as hardworking students diligently training to polish and refine their skills.

There have been some difficulties in the College of Music. Nevertheless, all the faculty and staff members of the College of Music as one body collected their utmost passion and wisdom and endured. Now, our SNU College of Music is preparing to begin a new age of prosperity.

This fall, the SNU College of Music has reached a new turning point and is ready for takeoff the next level.

Beginning with the reformation of the current academic system, we plan to realize and execute more systematic and future-directed objectives.

We will establish various methods for our talented students to freely train and show their skills.

The SNU College of Music strives to produce world-class musicians and demonstrate a new and improved self.

Thank you.

September 1, 2014

Dean of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U

한계를
뛰어넘는
열정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SNU Symphony Orchestra Regular Concert

At the biannual, Concert of the SNU Symphony Orchestra held on June 23rd in the Concert Hall of the Seoul Arts Center, Beethoven's <Symphony No.2 in D major Op.26> and Brahms's <Symphony No.4 in e minor Op.98> were performed with Prof. Hun-jung Lim's conducting. Following the program structure of last year's concert, Mozart and Mahler's Symphonies, both part of the concert in the first and second half, consisted of symphonies as well, which was an attempt to break the tradition of a concerto and symphony pair, and thus offered the audience fresh experience. The symphonies particularly selected for this concert are representative major repertoire of their period, the Classical and Romantic respectively, and granted the audience a historically meaningful listening opportunity.

6월 23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에서는 임헌정 교수의 지휘로 베토벤<교향곡 제2번 D장조 Op. 36>과 브람스<교향곡 제4번 e단조 Op. 98>이 연주되었다. 모차르트와 말러의 교향곡을 연주했던 지난해 정기연주회에 이어, 올해도 협주곡과 교향곡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전반부와 후반부 모두 교향곡으로 꾸며진 프로그램으로 신선함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교향곡 장르에 있어 각각 고전 양식과 낭만주의를 대표할만한 레퍼토리는 연주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청중들에게도 음악사적으로 의미 있는 감상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번 정기연주회는 '전석 초대'로 티켓을 무료 배포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덕분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공연장을 찾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료 초대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숨죽이며 감상에 몰입하는 그들의 모습과 피날레에 이은 열렬한 환호를 통해 청중들의 수준 역시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전반부에 연주된 베토벤의<교향곡 제2번 D장조 Op. 36>은 그의 독창성이 드러나는 제3번 '영웅' 교향곡만큼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하이든과 모차르트를 계승하는 고전주의 교향곡 양식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특히 당시 악화된 난청 증상으로 인한 깊은 좌절을 극복하고 탄생한 작품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관객들의 기대 속에서 느린 서주로 시작된 1악장은 곧 고전주의 작품에 걸맞는 단정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었다. 이후 낭만주의를 예견하듯 부드럽고 낭만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2악장을 거쳐 재치 넘치는 3악장 스케르초가 이어졌다. 마지막 4악장은 희극적인 도입과 우아함을 교차시키는 베토벤의 감각이 발휘되는 부분으로,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이를 훌륭히 소화하며 작품을 빛냈다.

후반부는 전반부의 다소 가벼운 색채의 고전주의 교향곡과 대조되는 브람스<교향곡 제4번 E단조 Op. 98>이 연주되었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브람스의 교향곡들 중에서도 마지막 역작으로 평가 받는 제4번 교향곡은 바로크적인 엄격한 구성을 따르며 그리스 비극을 소재

로 하여 더욱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작품이다. 인상적인 주제 선율로 시작하는 1악장은 숨 가쁘게 진행되며 청중을 몰입시켰고, 2악장에서는 선연적인 호른 선율과 함께 이전과 대비되는 엄숙함과 차분함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스케르초를 연상시키는 힘차고 화려한 3악장에서는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기량이 십분 발휘되며 최고의 연주를 선보였다. 4악장은 과거로 회귀하는 파사칼리아 형식으로 비극적 죽음을 묘사하는 가운데 '힘차고 정열적으로 빠르게 - 더 빠르게' (Allegro energico e passionato - piu allegro)라는 역설적인 악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이를 극적으로 표현한 임헌정 지휘자의 뛰어난 해석이 돋보였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수차례 이어진 커튼콜 뒤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일랜드 민요 '대니 보이 (Danny Boy)'가 앵콜곡으로 연주되었고, 학업을 병행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에 임한 학생들에게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 중에서도 이번 공연에서 악장을 담당한 김여경(바이올린·11) 학생은 "최

선을 다한 연주였고, 마음을 담아 연주했기에 아쉬움은 없다"고 소감을 밝히면서도, "다음 연주에서 더 섬세하고 유기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미래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언제나 대곡들을 소화하며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는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이번에도 두 거장의 교향곡이라는 쉽지 않은 프로그램을 훌륭히 연주해내며 국내 최고를 넘어선 세계 정상급 대학 오케스트라임을 증명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결실이 학생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클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나은 모습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진취적인 태도에서 앞으로 그들의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박성우(음악과 이론전공 석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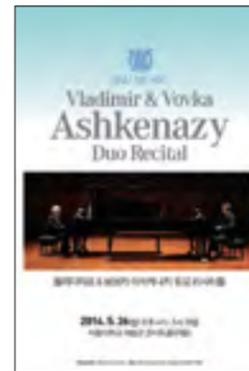


거장의 귀환

아쉬케나지 듀오 리사이틀

Vladimir & Vovka Ashkenazy Duo Recital

On last May 26th, the duo recital of the world-famous pianist Vladimir Ashkenazy and his son Vovka Ashkenazy was held in the Concert Hall of the Art Hall. The weather was as hot as mid-summer, but people lined up in front of the Concert Hall several hours before the concert to receive the entrance ticket. The recital began with the duo performance of the Ashkenazys and Q and A session followed.



무더위가 깊어가던 지난 5월 26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와 보브카 아쉬케나지의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이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거장의 연주를 듣고 자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연 수 시간 전부터 선착순인 입장권을 받기 위해 예술관 앞은 객석에 있는 관객들의 질문을 즉석에서 받아주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올해로 77세가 된 아쉬케나지는 그 특유의 화려한 기교는 물론이고, 자신만의 음악적 깊이를 더하여 이제는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부를 수 있다. 손가락 부상으로 한 동안 피아노 연주를 중단해야 했던 그는, 지난 2011년 13년 만에 피아니스트로 다시 우리 앞에 등장하여 다시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쇼케이스는 아쉬케나지의 고향인 러시아의 선율로 채워졌다. 먼저 아들인 보브카가 직접 편곡한 보로딘의 《오페라 '이고르 공' 중 '폴로베츠인의 춤'》이 연주되었다. 클래식 문외한에게도 친숙한 이 곡은 아쉬케나지 부자의 손을 거쳐서 새롭게 탄생하였다. 또한 러시아 대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피아노 듀오 버전으로 편곡하여 연주하였다.



연주가 종료된 후에는 청중들과의 대화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아쉬케나지 부자가 좋아하는 작곡가에서부터 재즈 등 다른 장르의 음악에 대한 평가, 가장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었다. 다소 낯익은 질문에도 두 연주자 모두 시종 웃음을 잃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답해주었다. 특히 가장 좋아하는 젊은 피아니스트로 일본의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노부유키 츠지이를 꼽으며 젊은 연주자들에게는 음악을 대할 때 항상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이번 질의에서 그는 소련을 탈출하여 서방으로 망명을 결심하게 된 계기와 일화까지 털어놓았다. 체제와의 갈등에서 거장이 겪었던 시련은 학생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이밖에도 본인이 차이코프스키 콩쿨에 참여해서 겪었던 경험들부터 은사인 리히터와 관련된 일화에 이르기까지, 거장이 풀어놓은 이야기보따리는 청중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다.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성악 부문 1위

황수미 인터뷰



Interview- Sumi Hwang, the Winner of the Queen Elisabeth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On May 31st, Soprano Sumi Hwang, an alumna of the College of Music of SNU, has won the Grand Prize, Queen Mathilde Prize, of Queen Elisabeth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Voice 2014 held in Brussels, Belgium. Along with Hwang's Grand Prize, Soprano Hye Sang Park, also an alumna of the College of Music of SNU, became fifth laureate and won the Brussels Capital Region Prize. The achievements in the competition clearly demonstrated the world-class ability and activities of SNU College of Music graduates. Hwang was greatly applauded by foreign media and judges for outstanding concentration, expressiveness, and rich voice which pierces and travels far beyond the orchestra.

5월 31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출신 소프라노 황수미 씨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014 퀸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황수미 씨의 우승과 더불어 소프라노 박혜상 씨가 5위를 차지하는 등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출신 성악가들의 세계적인 활약상을 볼 수 있었다. 소프라노 황수미 씨는 서울대 음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뮌헨 음대에서 프리디랑을 사사했다. 또한 2012년 독일 ARD 국제음악콩쿠르에서 2위로 입상했고 2013년 독일 아넬리제 로텐베르거 콩쿠르에서는 우승을 차지했다.

퀸엘리자베스 콩쿠르는 폴란드 쇼팽 콩쿠르, 러시아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음악경연대회로 꼽힐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 콩쿠르이다. "특별하게 큰 다짐을 하고 출전을 했기 보다는 3년에 한 번씩 열리고, DVD 심사를 통과해야만 현장 오디션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회이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참가했습니다."라며 출전했을 당시의 심경에 대해 말했다. 또한 "1차부터 현지 언론사들의 관심이 상당했고 벨기에 여왕님도 직접 들으러 오셨습니다. 또 홀을 가득 채운 현지 클래식 애호가들의 관심에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라며 당시의 심적인 부담감도 떠올렸다.

그는 결선 무대에서 도니제티, 푸치니, 샤르팡티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작품을 선보였다.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다보니 시간을 잘 나눠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곡들이 이미 익숙한 레퍼토리이긴 했지만 몇몇 새로운 곡들도 함께 익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콩쿠르 기간 동안 꽃가루 알레르기로 기관기가 좋지 않아 컨디션을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라며 콩쿠르 준비 과정상의 어려움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이내 "친절한 호스트 패밀리와 콩쿠르 진행요원들 덕분에 큰 불편함 없이 개인 컨디션 조절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어 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사실 결선 날은 이상하리만큼 떨리지 않았습니니다. 세미파이널 때 컨디션이 좋지 않아 결선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협연이라고 생각하니 콩쿠르가 아닌 콘서트로 편하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며 결선에 오르기 전 심경에 대해 말했다. 결선 무대를 마친 소감에 대해 묻자 "당연히 100% 만족스러운 무대는 아니었죠. 5곡 중 3곡이 무대에서 처음 불러보는 곡들이었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연주했습니다."라며 "다음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잘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혔다.

심사위원과 해외 언론으로부터 집중력과 표현력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뚫고 나오는 풍부한 성량에 대해 극찬을 받은 그에게 우승소감을 묻자 "사실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고, 너무 큰상이라 과연 내가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저 마냥 기쁘기 보다는 사실 걱정과 부담이 큰 자리이기도 해요."라고 답했다.

그는 수상 발표 후 부모님 다음으로 제일 먼저 서울대 재학 시절 은사님인 윤현주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다고 한다. "사실 저는 학부 때 까지만 해도 그렇게 눈에 띄는 실력을 가진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 대학원에 진학 하면서 윤현주 교수님께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도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느 날 레슨 때 교수님께서 제 노래를 들으시고 '이제야 조금 빛이 보인다'고 말씀하셨던 때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했던 지난 시간들이 참 소중한 감사합니다."



"일단 많은 선후배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에게 우승소식과 더불어 그를 롤모델로 삼으며 열심히 연습하고 있을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하자 "예술은 끝없이 연구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찍이 포기하기보다는 꾸준히 멀리 보고 정성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닌 연주자의 영혼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속사람'이 바르게 아름다운 내면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올 10월부터 독일 Bonn 오페라 극장에서 솔리스트로 데뷔하게 되었고 내년까지 많은 연주들이 잡혀 있어요. 욕심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좋은 음악활동을 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한국 오페라 무대에도 서고 싶습니다."

퀸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우승으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명예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소프라노 황수미 씨, 그의 풍부한 표현력과 감성 그리고 아름다운 내면이 담긴 앞으로의 연주 활동을 기대해본다. 

미래의 주역들,
그 도약의 무대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SNU Philharmonic Orchestra Regular Concert

On May 27th at the regular concert of the SNU Philharmonic Orchestra was held in the grand concert hall of the Cultural Cen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ieces of the concert were performed under the direction of Ms. Young-lang Kim, a current graduate student in the master's program in Conducting. The program included Smetana's (The Bartered Bride Overture), Ravel's (Tzigane), and W. A. Mozart's (Symphony No.41 in C Major ("Jupiter"), K. 551. Both the conductor and orchestra successfully demonstrated improved musical abilities through the performance, and moved and touched the hearts of the audience. They again proved themselves to be one of the best orchestras in the world and received much applause.



지난 5월 27일,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필하모닉 심포니의 주제는 '석사과정을 위한' 정기연주회로 이 날 연주는 현재 지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영랑 학생의 지휘로 연주되었다. 첫 곡으로는 본격적인 협연 무대에 앞서 스메타나의 《팔려간 신부 서곡》이 연주되었다. 첫 연주부터 단원과 지휘자가 하나 되어 수준 높은 기량으로 밝은 가락과 무곡의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었으며, 쾌적하고 명량한 분위기로 첫 시작을 화려하게 알렸다. 이어서 김여경(바이올린 · 11)의 협연으로 라벨의 《치간느 (Tzigane)》가 연주되었다. '치간느'는 프랑스어로 '집시'라는 뜻이다. 이 곡은 먼저 바이올린 솔로를 위한 긴 카덴차로 시작한다. 즉흥적이며 또한 멋진 한을 넘두리하듯 음울한 집시의 선율 속에 몇몇 독창적인 색채의 주제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마치 헝가리 집시들의 회환이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어 집시 특유의 선율과 함께 흥겨운 분위기의 바이올린이 돋보이는 기교로 클라이맥스까지 끝없이 발전해 나간다. 이 날 협연한 김여경은 엄청난 기술적 고난이도의 테크닉과 헝가리 정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이며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2부는 모차르트 《교향곡 제 41번 C장조 "쥬피터", K. 551》로 시작되었다. 모차르트의 최후의 교향곡이라고 불리는 이 곡은 '쥬피터'라는 부제를 갖고 있다. 위엄하고 당당하게 첫 시작을 알렸으며 특히 대위법적인 양식과 화성적인 양식의 사이에서 이룩된 조화가 인상적인 무대였다. 또한 그 장대함과 화려함은 모차르트 음악의 특징인 예쁘고 우아함을 뛰어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된 모습을 보이며 수준 높은 정상의 기량을 선보이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가 특히 이번 공연에서 빛을 발휘했으며 그로인해 관객들도 뜨거운 감동을 받으며 큰 박수 속에 막을 내렸다. 🌈

열정이
깃든 무대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교내 정기연주회



SNU Symphony Orchestra Campus Concert

The regular concert of the SNU Symphony Orchestra was held on last May 28th in the Grand Concert Hall of the Cultural Center of the SNU. Three very profound and sophisticated pieces, Mikhail Glinka's Overture to *Ruslan and Ludmila*, Robert Schumann's *Symphony No.1 in B-flat Major, Op.38*, Antonin Dvorak's *Symphony No.8 in G Major, Op.88* were performed for the night. The conductor and the members of the orchestra demonstrated perfect unison in spirit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concert and impressed the audience.



지난 5월 28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경쾌한 글린카의 서곡으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교내 정기연주회의 막이 올랐다. 이날, 러시아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글린카의 《루스란과 루드밀라 서곡》을 비롯하여, 슈만의 《교향곡 1번 B♭장조 '봄', Op.38》과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 G장조, Op.88》을 선보였다. 첫 번째 곡은 백승현(지휘·12)학생의 지휘 하에 연주되었다. 시작과 동시에 투티(모든 악기의 합주)의 강렬한 화음과 경쾌한 멜로디로 하나가 되는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곡 《교향곡 1번 B♭장조 '봄', Op.38》은 가곡을 주로 작곡하던 슈만의 첫 교향곡이다. 아내 클라라에 대한 애정과 결혼 초기의 평온하고 행복한 슈만의 감정이 잘 반영된 이 작품은 트럼펫 연주에 제1주제가 시작되었다. 지휘를 맡은 이규서(지휘·09) 학생은 열정적인 지휘로 연주에 임하였고 청중들은 이에 박수로 응하였다. 공연의 후반부는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 G장조 Op.88》이 장식하였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창작에 있어서 정점을 이루는 이 곡은 보헤미아 색채를 강하게 표현함과 동시에 자유로운 구성이 특징이다. 드보르작도 이 작품에 대해 스스로 “다른 교향곡과는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제안된 개성적인 악상을 가진 작품”이라고 하였다. 마지막 곡은 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객원지휘자로, 또 계원예술고등학교 음악과 현악전공 전임으로 활동 중인 서아진 지휘자가 맡았다. 객석에 앉아있는 제자들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그녀의 지휘는 섬세하면서도 힘이 넘쳤다. 모든 지휘자가 암보로 지휘할 만큼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대단했다. 이날 심포니 오케스트라 교내 정기연주회의 청중들은 청소년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무대 위의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오케스트라로 성장하길 바란다.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오케스트라로서의 발달을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국악연주자로서의

힘찬 도약

국악과 신입생 환영 연주회 / 신입생 연주회

Freshmen Concert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Last March 7th and 12th, when the flowers just began to bloom, the Freshmen Welcoming party and concert was held by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The seats were full due to the audience's interest in Korean Traditional Music.



신입생 환영 연주회

겨울을 지나 봄에 점점 다가가던 지난 3월 7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국악과 신입생 환영 연주회가 열렸다. 새롭게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국악과 학생들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자리였다. 이날 공연에서는 관악합주 《해령》을 시작으로 《판소리 '춘향가' 중 어사장모 상봉대목》, 《대풍류》, 현악합주 《출강》이 선보였으며 마지막으로 국악 실내악 《평릉》이 연주되며 막을 내렸다. 국악 특유의 아름다움과 함께, 숙련된 국악 전공자들의 원숙함을 느낄 수 있는 무대였다. 객석에는 국악과 신입생들을 비롯하여 국악과 교수진, 졸업생 동문들도 참가하여 국악과에 대한 동문들의 애정도 느낄 수 있었다.

신입생 연주회

이와는 별도로 지난 3월 12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국악과 신입생 연주회가 열렸다. 국악에 대

한 대중들의 관심과 새롭게 출발하는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관객석은 빈자리 없이 가득 채워졌다. 이날 신입생 연주회는 국악과 자체적인 연주회로, 새로 입학한 학생들의 실력을 여지없이 선보이는 행사였다. 이번 신입생 연주회에서는 다양한 곡목이 연주되었다. 먼저 첫 번째 연주로 《만파정식지곡》이 연주되었다. 이는 궁중 연례악으로 다양한 악기 편성으로 청중들의 귀를 즐겁게 했다. 두 번째 곡은 《사랑가》로 춘향전의 감동을 떠올리게 했으며 이 밖에도 현악합주곡인 《달무리》, 대금 산조 독주, 기악합주 《신벚노래》 등 다채로운 연주가 이어졌다. 이날 연주는 국악 특유의 매력과 현란함으로 청중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였고 청중들은 추임새, 박수 등 뜨거운 반응으로 보답하였다. 신입생 연주회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남기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통,
봄처럼 돌아오다

국악과 봄 정기연주회

Spring Concert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On last April 28th, the Spring Concert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was held in the Concert Hall of the Art Hall of the College of Music of SNU. The programs performed for the concert proved hugely entertaining and pleasurable to the audience. Appreciating the Korean-specific 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Music, the audience responded with passionate applause and participation.



완연한 봄으로 접어든 지난 4월 28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국악과 봄 정기 연주회가 열렸다. 국악에 대한 관심으로 관객석은 빈자리 없이 가득 채워졌다.

종묘제례악 보태평 중 《전폐희문》과 《정대업의 소무, 영관》이 이날의 첫 곡이었다. 전폐희문은 '의식 절차 중 전폐에 연주하는 희문'이라는 의미로 3가지 종류의 희문 중 가장 느리게 연주된다. 전폐희문에 이어 두 번째 곡으로는 무속음악에 뿌리를 둔 즉흥 기악합주곡인 《시나위》가 연주되었다. 여러 종류의 악기들이 일정한 장단의 틀 안에서 즉흥적으로 자유롭게 연주하는 음악이지만 산만하거나 불협화음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부조화 속의 조화', '혼돈 속에 질서'가 담긴 음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악 합주 《일출》이 연주되었다. 거문고 독주곡인 일출은 장엄한 일출의 광경을 거문고로 표현한 곡으로 1장 '어둠', 2장 '먼동', 3장 '떠오르는 해'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일출의 회화적 인상을 청각적으로 표출해 냈다.

네 번째 순서로 단막 창극 《심청가 뽕파전》이 연주되었다. 창극은 보통 소리꾼 한 사람이 하는 판소리의 형태를 벗어나 등장인물에 따라 여러 소리꾼을 등장시켜 연극처럼 꾸민 형식의 공연이다. 심 봉사가 맹인 잔치에 가기 위해 뽕떡이네와 길을 나선 후 도중에 만난 황봉사와 동행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렸다. 마지막 곡으로는 국악관 《산곡》이 연주되었다. 산곡은 1992년 서울대학교의 위촉으로 작곡된 곡이다. 시대의식을 갖고 창작음악의 역사를 써가는 대표적인 작곡가 이진용 선생님의 작품으로 궁중, 민속음악이 모두 녹아져 있는 정통 관현악의 고전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산에 배어있는 한국인의 정서를 표현하였다. 오늘 연주는 국악 특유의 매력과 현란함으로 청중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였고 단원들의 일취월장한 기량에 청중들은 추임새, 박수 등 뜨거운 반응으로 보답하였다. 이렇게 봄 정기연주회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남기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Exchange Concert of Chinese Culture University of Taiwan

It was a turn of season into deeper summer, May 29th, when a crew from abroad visited SNU. They were students and faculty of the College of Music of Chinese Culture University of Taiwan visiting the College of Music of SNU for an academic exchange. During the visit, the performers from CCU introduced interesting genres of music unfamiliar to Korean students, like Chinese traditional music, and Taiwanese native music.



대만, 전통의 재해석

국악과 중국문화대학 교류연주회

여름이 점점 깊어가는 지난 5월 29일, 해외로부터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대만 소재 중국문화대학(中國文化大學) 음악대학 소속 교수 및 학생 일행이 서울대 음대를 방문한 것이다. 이번 방문에서 대만 연주자들은 중국의 전통음악과 함께, 대만의 원주민 음악 등 다양하고 새로운 음악들을 우리에게 선보였다.

첫 곡인 《解構(해구)》는 구조를 해체한다는 뜻으로 타악기를 활용한 곡이다. 대만 작곡가 Wang Hsiao-Yin은 구조를 해체한다는 표제의 의미처럼 타악기를 통해 점차 보여지는 여백의미를 표현하였다. 대만 연주자들은 打擊(타격)이라는 전통 타악기를 사용하여 악기 특유의 동양적인 느낌을 잘 표현해 내었다.

두 번째 곡 《醉漁唱晚(취어창만)》은 1802년 중국에서 작곡된 곡으로 전통악기 쟁을 이용한 독주곡이다. 이는 전통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작곡가 Fan Wei-Tsu는 중국 민간의 민요를 수집하여 늦은 밤 생선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는 표제의 모습을 그려내었다. 더불어 아쟁 등 쟁류 악기의 시조가 되는 중국 쟁의 아름다운 음색은 관중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였다.

후반부에는 대만 원주민들의 전통 음악들이 이어졌다. 대만 원주민 부족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阿美族(아미족)의 음악을 중국 악기로 연주한 《阿美族舞曲(아미족무곡)》은 청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대만 작곡가 Jou Chen-Long은 민족음악학자로 대만 원주민 음악의 보존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이는 원주민의 음악을 대중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시도로 얼후와 피아노로 편곡하여 연주하였다.

마지막 곡으로는 《京華亂彈搖滾風(경화난탄요곤풍)》이 연주되었다.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라고 부를 수 있는 곡이다. 이는 흔히 경극이라 부르는 베이징 오페라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작품으로 제멋대로라는 뜻의 亂彈(난탄)과 락음악을 뜻하는 搖滾(요곤)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파격적인 시도를 보여줬다. 전통 악기와 타악기를 다수 동원하여 매우 현대적인 해석의 작품을 선사하였다. 객석의 뜨거운 박수 소리와 함께 이날 공연은 막을 내렸다. 전통 음악을 이용한 다양한 시도들이 돋보이는 공연이었다. 



MASTERPIECES

BY

SNU



현대 러시아를 듣다

〈STUDIO2021〉 소피아 구바이둘리나

지난 5월 22일, 서울국제음악제와 공동주최하여 열게 된 이번 〈STUDIO 2021〉에 참석하고자 러시아 현대음악의 거장 소피아 구바이둘리나(Sofia Gubaidulina)가 한국 땅을 밟았다. 노(老) 작곡가의 첫 내한이라 건강이나 몸 상태에 많은 염려되었던 것과는 달리, 구바이둘리나는 1931년생이라는 나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활기찬 모습이었다. 한국에 입국한 다음 날부터 총 연습과 인터뷰가 계속해서 이어진 힘든 일정이었지만, 그녀는 시종일관 활기찬 표정으로 모든 일정에 임했다.

〈STUDIO 2021〉을 통해 서울대에 방문하였던 많은 작곡가 중, 구바이둘리나 정도의 세계적 명성을 얻은 작곡가는 사실상 펜데레츠키뿐이다. 그만큼 이번 구바이둘리나의 내한은 한국 현대음악계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구바이둘리나

는 1931년 당시 소비에트연방에 속해 있었던 타타르공화국의 도시 치스토폴에서 태어나, 카잔 음악원과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작곡을 공부하였다. 서구 아방가르드 음악을 수용하던 그녀의 음악은 당시 소련의 상황 속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작품 활동을 멈추지 않았던 그녀는 소련 외부의 서구 음악계에서의 인정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5월 23일에는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구바이둘리나의 작품 《요한 수난곡》에 대한 서정은 박사의 강연이 있었다. 서정은 박사는 이 거대한 작품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구바이둘리나의 작곡 방식에 대하여도 강연하였다 (강연 내용은 STUDIO 2021에 발행하는 프로그램 노트에 수록되어 있



〈STUDIO2021〉 Sofia Gubaidulina

Last May 22nd, Sofia Gubaidulina, a renowned Russian composer, reached Korean ground to participate in 〈STUDIO2021〉 cosponsored by Seoul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and the Department of Composition of SNU. The first concert held on May 23rd in the Concert Hall of the Art Hall of SNU began with a lecture on Gubaidulina's (Johannes-Passion for soprano, tenor, baritone, bass, two mixed choirs, organ and large orchestra) and was followed by performances. The concert program mainly featured Gubaidulina's solo and chamber pieces. The 5:00p. m. concert on May 26th was held under the topic of "Gubaidulina and her Contemporary Musicians", and the 8:00 p.m. concert was entitled "Sofia Gubaidulina Special Concert".

으며,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강연 이후 구바이둘리나와의 대담이 있었다. 대담은 전반적으로 그녀의 작곡 세계관과 정신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이어졌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수열의 음악적 구현을 중심으로 다뤘다.

강연 이후 이어진 콘서트에서는 구바이둘리나의 독주곡과 실내악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특별히 피아노 독주곡인 《소나타》를 연주한 우용기와 《샤콘느》를 연주한 전지훈의 연주는 작곡가 본인도 극찬할 만큼 성공적인 연주였다. 구바이둘리나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신성과 드라마를 견고한 테크닉으로 표현해낸 멋진 연주였다. 또한, 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가 연주되었으며, 《현악 4중주 제2번》이 연주되었는데 두 곡 모두 전반적으로 좋은 연주였다는 평이었다.

3일 후인 5월 26일에는 예술의전당에서 두 개의 콘서트가 열렸다. 오후 5시에는 IBK 챔버홀에서 '구바이둘리나와 동시대 음악가들'이라는 주제로 열렸고, 8시에는 '소피아 구바이둘리나 특별콘서트'라는 주제로 열렸다. 5시 공연에는 구바이둘리나와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러시아 여류 작곡가인 갈리나 우스트볼스카야(Galina Ustvolskaya)와 러시아 현대음악의 대가라고 불리는 알프레드 슈니트케(Alfred Schnittke)의 작품들이 연주되었고, 구바이둘리나와 작품경향을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이신우 교수와 최우정 교수의 작품도 연주되었다.

첼리스트 백청심 명예교수와 피아니스트 주희성 교수가 연주한 우스트볼스카야의 《그랜드 듀엣》은 음악회의 시작을 알리는 힘찬 곡이었다. 3악장까지만 연주된 이 작품은, 시종일



관 첼로와 피아노로 하여금 클러스터들을 리드미컬하고 강하게 연주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별히 인상적인 부분은 3악장이었는데, 콘트라베이스 활로 첼로를 연주하게끔 한 부분이였다. 두 번째로, 이신우 교수의 《라멘트 - 오, 시온의 딸!》를 플루티스트 윤혜리 교수와 피아니스트 이영우가 연주하였다. 이신우 교수의 작품들은 종교성과 영성을 다루는 측면에서 구바이둘리나와 유사한 작품 경향을 보인다. 이날 연주한 《라멘트》는 구약성서 '예레미야 예언' 2장 1절로부터 출발한 작품으로서, '죄와 구원에 대한 작곡가의 깊은 성찰이 엿보이는 작품이다. 1부의 마지막 순서로는 구바이둘리나의 《호케투스 풍으로》가 피아니스트 박종화 교수, 비올리스트 이수민,

바스니스트 표규선의 연주로 연주되었다. 3화음의 현대적 사용과 세 악기의 대위적 움직임이 특징적인 이 작품은 구바이둘리나가 가진 역동성이 잘 드러난 매력적인 곡이었다. 실제로 구바이둘리나가 리허설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쓴 작품이기도 하였다. 인터미션이 끝난 후 연주된 2부의 두 작품은 모두 성악곡으로서,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연주하였다. 최우정 교수의 《시편》과 슈니트케의 《참회의 시편》은 모두 기독교 사상을 나타내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었지만, 최우정 교수의 《시편》이 성경 속의 시편에서 텍스트를 차용한 것이라면, 슈니트케의 경우 성경이 아닌 러시아 정교회의 사상에서 출발한 16세기 러시아의 자료에서 가져왔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최우정 교수의 《시편》은 스페인어로, 슈니트케의 《참회의 시편》은 러시아어로 되어있어 각 언어의 뉘앙스를 반영한 작품 간의 차이점도 엿볼 수 있었다.

같은 날 8시에 열린 '소피아 구바이둘리나 특별 콘서트'에서는 구바이둘리나의 오케스트라 작품들이 연주되었다. 바리톤과 챔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루바이아트》와 피아노와 챔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입당송》, 그리고 본래 두 대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이었으나, 두 대의 비올라를 위한 작품으로 편곡하여 세계 초연한 《두 개의 길: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헌정》 등 세 작품이 연주되었다. 바로크합주단의 단합된 연주가 인상적이었으며, 특별히 피아니스트 최희연 교수가 협연한 《입당송》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의미의, 독주자의 기교를 드러내며 독주와 오케스트라의 대립관계가 형성되는 협주곡과는 거리가 먼 작품이었다. 명상적인 성격의 피아노 파트는 청중들이 머물 수 있는 일종의 음향적 공간을 만들었고, 청중들은 오케스트라와 독주 악기가 만들어 놓은 공간 사이를 돌아다니며 작곡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영성과 종교성에 대하여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에서 현대음악에 대한 인식과 음악회에 현대음악 작곡가를 단독으로 조명하여 청중을 불러 모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이번 음악회의 객석 점유율은 대단히 고무적이었다. 거의 만석에 가까운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층 객석을 보면서, 좋은 작품과 좋은 작곡가가 가지는 파급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 음악회였다. 또한, 작곡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대가의 방문이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한다.

이용석(작곡과 석사과정)

2014 International Piano Academy

The 2014 International Piano Academy of SNU College of Music was held in the College of Music of SNU for five days from February 17th to 21st, 2014. The academy has been held annually with great support and interest from future pianists. Numbers of distinguished professors like Awadagin Pratt, Benjamin Pasternack, Bruce Brubaker, Natalya Antonova, Paul Schenly, Phillip Kawin, Stefan Arnold, and Ueno Makoto have been participating as instructors. This year, session, three professors, Prof. Nelita True from the Eastman School of Music of the University of Rochester, Alexander Korsantia from the New England Conservatory, and Ian Hobson from the University of Illinois School of Music, were invited.



음악의 깊이를 더하다

2014 International Piano Academy

2014년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2014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제 피아노 아카데미'가 개최되었다. 이 아카데미는 매년 예비 피아니스트들의 높은 관심으로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으며, Awadagin Pratt, Benjamin Pasternack, Bruce Brubaker, Natalya Antonova, Paul Schenly, Phillip Kawin, Stefan Arnold, Ueno Makoto 등 뛰어난 교수들이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참여해왔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이스트만 음대의 Nelita True,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의 Alexander Korsantia, 일리노이 음대의 Ian Hobson의 세 교수가 초청되어 많은 학생들이 가르침을 받았다.

이 세 교수는 서로 가르치는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먼저 Nelita True는 섬세한 표현으로 캐릭터를 중요시 하였고 Alexander Korsantia 교수는 특유의 열정적인 면을 한껏 발산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효과적인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Ian Hobson 교수는 자신의 학구파적 면모를 발휘하여 폭넓은 음악 세계를 보여주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레슨 이외에도 Alexander Korsantia 교수와 Ian Hobson 교수의 연주회, 그리고 김정은, 이용규, 유영욱 교수와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연주회가 열렸다. 이들 모두가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어 관객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사해주었다.

올해 아카데미를 통해 많은 수의 예비 피아니스트들이 귀중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다. 좋은 음악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결국은 이들이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일 것이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달할 수는 없었지만, 이들의 가르침은 학생들에게 앞으로 음악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김민규 (피아노 · 13)



산조음악의 세계 관악사 음악회

“World of Sanjo Music”/ Gwanaksa concert

On June 17th when the semester was about to finish, a meaningful recital was held in the SNU dormitory. Full of scent and imag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he recital was held in the Sa-rang Chae of Gwanaksa and consisted of 3 sanjo performances. So audience was able to experience daegeum, ajaeng, geomungo and feel the beauty and nature of Sanjo music.



한 학기가 마무리 되던 지난 6월 17일, 서울대학교 기숙사에서 국악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연주회가 열렸다. 관악사 사랑채에서 열린 이번 연주회에는 소규모 편성으로 다양한 산조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9세기부터 연주되기 시작한 산조(散調)는 느린 장단으로부터 빠른 장단으로 연주하는 기악 독주의 민속 음악으로 장구 반주가 함께하는 음악이다. 산조는 물론, 국악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을 맡은 국악과 김승근 교수와 힐러리 핼칭 성 교수는 국악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채롭고 풍부한 설명을 준비하였다. 이는 국악을 처음 접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물론, 한국문화

와 음악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 학생들까지도 국악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하였다. 특히 교수님 특유의 재치 있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 덕분에 시종 즐거운 분위기에서 연주를 감상할 수 있었다. 이날 공연에서는 다양한 국악기를 활용한 산조연주가 이어졌다. 첫 곡은 서용석류 대금산조로 국악기 대금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연주였다. 이후에는 장구장단에 맞추어 박종선류 아쟁산조, 한갑득류 거문고산조가 이어졌고 국악만의 템포와 선율을 느낄 수 있었다. 연주자들은 우수한 기량을 선보였으며 특히 국악 특유의 심오함과 섬세함을 잘 표현해내었다. 관객들도 뜨거운 박수와 추임새로 화답하며 연주자들의 노고에 보답하였

다. 이번 연주회를 통해 한국문화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의 전통 음식을 준비하는 등 국악과의 세심한 준비가 돋보였다.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글로벌한 기숙사의 환경답게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이번 연주회를 감상하였다. 연주회를 관람한 중국인 유학생 리원려우 학생은 “중국과는 다른 한국만의 전통음악(국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한국에 유학생생활을 하면서도 쉽게 접하기 힘든 국악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고 좋았다. 특히 아쟁이라는 악기의 매력적인 소리에 빠져들었다.”고 말했다. 스페인에서 온 제이 학생은 “한국에 온 지는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한국만의 악기와

음악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국악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잘 보존하고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기숙사 연주회는 유구한 전통을 가진 우리의 음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노력과 더불어 국악의 아름다움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4월 1일
티모시 엘렌(Timothy Ehlen)의
피아노 리사이틀



4월 8일
비움과 언락(音樂UNLOCK)의
국악콘서트



4월 15일
박종화와 Halo Quartet의 연주

서울대 가족과 관악주민을 위한 화요음악회

Tuesday Concerts

The Tuesday Concerts are a series of non-profit charity concerts organized for students and faculty of SNU and residents of the local district. The Tuesday Concerts of the first semester of 2014 consisted of the piano recital of Pianist Timothy Ehlen, a Traditional Music Concert of Bium and Unlock, the 'Drawing Spring' concert by Jong-Hwa Park and Halo Quartet, the concert 'Listening Chamber Music through Numbers' with Harmonia Chamber Players, and the concert 'From China with Love: Romance and Fantasy' by Pianist Lucas Wong and Violinist Lee-Chin Siow.



4월 22일
Harmonia Chamber Players



4월 19일
From China with Love:
Romance and Fantasy

화요음악회는 서울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관할 구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무료 예술 공연 행사이다. 이 음악회는 관객들에게 국·내외 저명한 연주자들의 연주를 접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동·서양의 음악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뿐만 아니라 관객들로 하여금 음악을 보다 친숙하고 가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994년 1학기 '수요음악회'의 명칭으로 시작된 본 음악회는 1996년 2학기부터 '화요음악회'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현재까지 높은 수준의 연주와 함께 계속되고 있다.

4월 1일에 열린 2014년도 1학기 첫 화요음악회는 티모시 엘렌(Timothy Ehlen)의 피아노 리사이틀이었다. 그는 현재 UIUC, 일리노이 대학교(어바나 샴페인)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독주, 실내악 연주 그리고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활발하게 연주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베토벤(L.v.Beethoven)의 《피아노 소나타 제18번 E♭ 장조, Op.31, no.3》와 《피아노 소나타 제21번 C 장조, Op.53, '발트슈타인'》이 연주되었다. 티모시 엘렌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음반에 대해 팡파레 음악잡지(2011년 5월/6월)의 평론가 Boyd Pomeroy로부터 '가장 풍부한 해석을 담은 연주'라고 평을 받을 정도의 실력 있는 연주자인 그는 이날 우아하고 세련된 음악성을 담은 연주를 선보였다.

4월 8일에 열린 두 번째 화요음악회는 비움과 언락(音樂:UNLOCK)의 국악콘서트로 진행되었다. 먼저 전통 국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음악을 창작, 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 창단된 '비움'은 이날 《천년만세》, 《시나위》 그리고 '비움'의 작곡자인 송지섭의 《하늘 마중》을 연주하였다. 다음으로 음악으로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무한한 음악적 색을 표현하는 서울대학교 국악과 13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인 '언락'의 무대가 이어졌다. 최근 이슈가 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활동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기획된 '여러분의 흘러가는 20대,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이 붙은 이 공연에서는 한지윤의 《거문고, 피리, 대금을 위한 합주곡》, 강은구의 《녹아내리는 빙하》, 이의영의 《가오내》, 김철환의 《연정》, 한지윤의 《흘러가는 이십대 안녕들 하십니까》, 강상구의 《아도니스(회상)》 그리고 한태수의 《Fly to the sky》가 연주자들의 나레이션과 함께 연주되었다. 전통 국악 그룹과 프로젝트 그룹의 음악을 비교하면서 들어보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음악회였다.

4월 15일, 세 번째 화요음악회는 '봄을 그리다'라는 제목 아래 박종화와 Halo Quartet의 연주로 이루어졌다. 자신을 음악과 피아노를 따라 살아온 낭만적 음악 유목민이라 표현하는 피아니스트 박종화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주로 유럽을 무대로 활동을 하다 2007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한 신선한 도전과 실내악, 독주, 협연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박종화와 국·내외 쟁쟁한 콩쿠르에서 다수의 입상 경력이 있는 연주자들로 이루어진 Halo Quartet(김예린, 이혜미, 이태인, 이로운)이 만나 감탄을 자아내는 매력적인 연주를 선보였다. 슈베르트(F.Schubert)의 《피아노 4중주, Op.114, '송어'》와 피아졸라(A.Piazzola)의 《사계 중 '봄'》과 《리베르탱고》로 관객들로 하여금 봄의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게 한 연주가 인상 깊었다.

4월 22일에 열린 네 번째 화요음악회는 Harmonia Chamber Players와 함께하는 숫자로 듣는 챔버 음악이 펼쳐졌다. 각각 자신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젊은 연주자들이 모인 현악 단체인 Harmonia Chamber Players는 6중주, 8중주와 같은 중간 규모의 챔버가 활성화되지 않은 한국에서 챔버 음악의 새로운 발견과 그 악기들이 어우러져 이루어내는 풍성한 소리와 음악의 깊이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첫 번째 순서는 독주 무대로 바흐(J.S.Bach)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제1번 G 장조, BWV 1007》이 연주되었고, 이어서 바이에르(J.Barrière)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소나타 제4번 G 장조》, 하이든(J.Haydn)의 《현악 3중주 제1번 G 장조, Op.53》, 보로딘(A.Borodin)의 《현악 4중주 제2번 D 장조》,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 C 장조, D.956》 그리고 땡디(V.D'Indy)의 《현악 6중주 B♭ 장조, Op.92》가 마지막을 장식하였다. 연주자의 수가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풍성해지는 하모니는 관객들을 챔버 음악의 매력에 빠져들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4월 29일, "From China with Love: Romance and Fantasy"라는 제목과 함께 2014년 1학기 마지막 화요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음악회는 5개 대륙의 20개 나라, 카네기홀에서부터 오사카 심포니홀에 이르기까지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는 바이올리니스트 리친(Lee-Chin Siow)과 솔로리스트, 실내악 연주자 그리고 성악지도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루카스(Lucas Wong)의 연주로 이루어졌다. 슈만(R.Schumann)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소곡집 Op.73》, 프로코피예프(S.Prokofiev)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1번 F 단조, Op.80》 그리고 비에니아프스키(H.Wieniawski)의 《폴로네이즈 제1번 D 장조, Op.4》가 연주된 이번 음악회는 사랑의 로맨틱하고도 환상적인 색채를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선율을 통해 들려줌으로 관객들에게 가슴 벅찬 설렘을 안겨주었다.



국악에 대한 사랑으로 국악과 황준연 교수



Everlasting Enthusiasm to Korean Music Interview of Retiring Professor: Prof. Emeritus Hwang, Jun-Yon

Prof. Emeritus Jun-yon Hwang, who had served and dedicated himself in raising and training young musicians of the next generation in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1992, has come to retire this year.

At the end of interview, he sent a message to students of music department that creating outstanding work is much more important than performing the music.

우연히 시작한 국악을 평생 하게 됐다며 웃어보이던 국악과 황준연 교수는 퇴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인생이 연극이라면 하나의 막을 끝낸 것 같다”며 “다음 막에서는 우리 음악의 현재와 미래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우리 고유 음악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그 역사를 해석하는 연구를 하며 우리 음악의 과거에 대해 고민해왔다. 현재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단장인 그는 공연 ‘어른을 위한 동화’에서 마이크를 쓰지 않고 악기 고유의 소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지난 50년 동안 지그재그로 걸어온 국악관현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국악관현악에 걸맞는 음향과 곡이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국악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한식을 많이 먹고 자란 사람은 커서도 한식을 좋아하고, 서구 음식을 먹고 자란 사람은 그런 음식을 좋아하기 마련인데 음악도 이와 마찬가지로”라며 “요즘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햄버거만 먹고 자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학 신입학생 모집 안내서에서도 인문대에서는 국문학과가 제일 위에 있는 반면 음대에서는 국악과가 뒤로 밀려나 있는데 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고쳐야 할 문제”라며 교육 측면에서 국악을 경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황 교수는 “우리 음악은 질적, 양적 측면에서 모두 일본이나 중국 음악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며 우리 음악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줬다. 특히 황 교수는 궁중음악이 대부분 소실된 중국, 외래음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일본의 궁중음악과 우리나라의 궁중음악을 비교하며 “동아시아 3국 중에서 우리나라에만 전해져 오는 음악적 유산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에는 국립기관인 국립국악원과 거의 모든 시·도에 존재하는 국악교향악단 등 국악에 대한 국가기관이 많이 있다”며 “제도적으로도 우리 음악이 굉장히 풍성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황 교수는 학생들에게 “연주를 한 번 해서 감동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작품 그 자체”라며 우리 시대의 음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좋은 작품을 남겨 주기를 당부했다. 

출처 :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발전기금출연자 명단



(단위: 원)

| 출연자명 | 기금용도 | 기금명 | 납입금액 | 납입일자 |
|-----------|------|----------------|------------|------------|
| (주)두산 | 학술 | | 5,000,000 | 2014.03.04 |
| 고 김선화(정자) | 학술 | 선화 김정자 가야금 장학금 | 50,100,000 | 2014.03.06 |
| 홍순옥 | 위임 | | 2,000,000 | 2014.01.06 |
| 김규동 | 학술 | | 50,000 | 2013.12.13 |
| 이돈응 | 위임 | | 100,000 | 2013.12.17 |
| 이신우 | 위임 | | 50,000 | 2013.12.17 |
| 최경환 | 시설물 | 관악전공기금 | 100,000 | 2013.12.17 |
| 전상직 | 위임 | 음악대학 교수 발전기금 | 500,000 | 2013.12.26 |
| 송경희 | 학술 | 송경희 장학금 | 100,000 | 2013.12.27 |
| 최강산 | 위임 | 관악전공기금 | 20,000 | 2013.12.27 |
| 풍강산업(주) | 위임 | | 100,000 | 2013.10.01 |
| 김규동 | 학술 | | 50,000 | 2013.10.10 |
| 이돈응 | 위임 | | 100,000 | 2013.10.21 |
| 이신우 | 위임 | | 50,000 | 2013.10.24 |
| 최경환 | 시설물 | 관악전공기금 | 100,000 | 2013.12.12 |
| 송경희 | 학술 | 송경희 장학금 | 100,000 | 2013.12.16 |
| 전상직 | 위임 | 음악대학 교수 발전기금 | 500,000 | 2013.12.18 |
| 김미영 | 학 | | 200,000 | 2013.12.19 |
| 최강산 | 위임 | 관악전공기금 | 20,000 | 2013.12.20 |
| 풍강산업(주) | 위임 | | 100,000 | 2013.12.12 |
| 김규동 | 학술 | | 50,000 | 2013.12.16 |
| 이돈응 | 위임 | | 100,000 | 2013.12.18 |
| 이신우 | 위임 | | 50,000 | 2013.12.19 |
| 최경환 | 시설물 | | 100,000 | 2013.12.20 |
| 전상직 | 위임 | 음악대학 교수 발전기금 | 500,000 | 2013.12.25 |

** 발전기금 참여안내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휴대폰,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무통장입금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 농협 079-17-000136 ◎ 신한 100-014-328209 ◎ 우리1006-601-280134
-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 서울대학교발전기금 홈페이지 www.snu.or.kr에서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유증 및 부동산 등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 음악대학 또는 특성학과를 지정해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출연자명 | 기금용도 | 기금명 | 납입금액 | 납입일자 |
|---------|------|--------------|-----------|------------|
| 송경희 | 학술 | 송경희 장학금 | 100,000 | 2014.03.04 |
| 김미영 | 시설물 | | 100,000 | 2014.03.06 |
| 최강산 | 위임 | 관악전공기금 | 20,000 | 2014.01.06 |
| 송은도 | 위임 | | 1,000,000 | 2013.12.13 |
| 이소영 | 위임 | | 500,000 | 2013.12.17 |
| 풍강산업(주) | 위임 | | 100,000 | 2013.12.17 |
| 김규동 | 학술 | | 50,000 | 2013.12.17 |
| 이돈응 | 위임 | | 100,000 | 2013.12.26 |
| 이신우 | 위임 | | 50,000 | 2013.12.27 |
| 최경환 | 시설물 | 관악전공기금 | 100,000 | 2013.12.27 |
| 김우진 | 위임 | | 100,000 | 2013.10.01 |
| 전상직 | 위임 | 음악대학 교수 발전기금 | 500,000 | 2013.10.10 |
| 송경희 | 학술 | 송경희 장학금 | 100,000 | 2013.10.21 |
| 김미영 | 시설물 | | 100,000 | 2013.10.24 |
| 최강산 | 위임 | 관악전공기금 | 20,000 | 2013.12.12 |
| 풍강산업(주) | 위임 | | 100,000 | 2013.12.16 |
| 김규동 | 학술 | | 50,000 | 2013.12.18 |
| 이돈응 | 위임 | | 100,000 | 2013.12.19 |
| 이신우 | 위임 | | 50,000 | 2013.12.20 |
| 최경환 | 시설물 | 관악전공기금 | 100,000 | 2013.12.12 |
| 김우진 | 위임 | | 100,000 | 2013.12.16 |
| 전상직 | 위임 | 음악대학 교수 발전기금 | 500,000 | 2013.12.18 |
| 송경희 | 학술 | 송경희 장학금 | 100,000 | 2013.12.19 |
| 김미영 | 시설물 | | 100,000 | 2013.12.20 |
| 최강산 | 위임 | 관악전공기금 | 20,000 | 2013.12.25 |

강의실을 찾아서

희망의 연주를 꿈꾸는 나무들

국악 관현악 / 임재원 교수님



2014년 5월 27일 1학기 마지막 수업

삶의 애환이 담긴 북장단이 가슴을 두드리는 것이 인상 깊은 '남도 아리랑'이 울려 퍼지는 임재원 교수님의 국악 관현악 수업 강의실을 찾았다. 교수님께서 "새로운 곡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할 것 같은 곡을 골랐다"며 "역동적인 리듬을 섬세하게 신경 써서 연주해보자"고 하셨다. 학생들은 교수님의 지휘를 따라 '남도 아리랑'이 가진 삶의 희로애락을 표현하였다. 필자가 듣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연주였으나, 교수님께서 "원래 버전에서는 해금 선율이 나오는데, 이 버전에서는 태평소 독주가 나오니 조금 어색하게 들리네. 이번엔 태평소 한 번 쉬어보자."라고 말씀하시며 곧바로 더 좋은 연주를 들려주셨다.

국악 관현악 수업은 앞으로 전문 연주자가 될 학생들이 더욱 폭넓게 관현악 곡들을 접하고, 곡을 해석하는 안목을 기르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임재원 교수님께서 "학생들은 합주 수업을 통해 자신의 악기 소리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리도 함께 들으며 음악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폭넓은 공부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살피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라고 하셨다. 임정민(대금 · 10) 학생은 "서로의 악기 소리를 듣고 호흡을 맞추며 곡을 만들어가는 것이 재미있었고, 많은 곡들을 접하며 초견 연습까지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Korean Music Orchestra by Prof. Lim, JaeWon

On May 27th, the reporter decided to visit Korean Music Orchestra class taught by Prof. Lim, JaeWon. Prof. Lim said, "Through ensemble classes, students learn to listen and pay attention to others' instruments, besides their own instrumental sounds, and through such, attempt to make the music their own. The goal of this class is to obtain various types of experiences through broad spectrum of study."

라고 말했다. 김정휘(작곡이론 · 11) 학생에게도 수강소감을 묻자 "관현악 단에서 타악기를 쳐보는 것은 흔치않은 기회인데 공부 많이 되었다"고 했고, 선찬주(가야금 · 12) 학생은 "이번 학기에는 한 곡을 여러 번 하기 보다는 여러 곡을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어서 보람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이번 학기에는 평균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길이인 '비밀의 숲', '빛의 나라', '마음', '남도 아리랑' 등을 비롯한 관현악곡 13곡을 다뤘다고 한다.

국악 관현악 수업은 교수님과 학생 사이의 벽이 없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랑하였다. "○○아, 박자가 왔다 갔다 해", "○○아, 타악기 누가 할지 다 정했니?" 이렇게 학생들의 이름을 외워서 불러주시는 교수님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뿐만 아니라 수업 중간에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친근함을 느끼게 하는 듯 보였다.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곡인 '꿈꾸는 나무'를 연주하기 직전, 교수님께서 "이번 학기 마지막 곡이네. 우리는 항상 희망의 꿈을 꾸어야 해"라고 하자 45명의 학생들은 일제히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곧바로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환호도 잠시 학생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돌아가 이번 학기 마지막 곡인 '꿈꾸는 나무'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역동적인 박자를 따라가려는 학생들의 손놀림은 분주했지만 신비로운 곡의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한 그들의 연주는 여유로웠다. 그리고 교수님의 지휘를 보며 연주하는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빛은 '꿈꾸는 나무'의 모습을 연상하게 했다. 열정이 가득했던 마지막 연주를 마치자, 학생들은 집중하느라 잊고 있었던 더위에 직면하여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때 창 밖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 악보가 날아가는 바람에 학생들이 당황했다. 교수님께서 "바닷가에 온 것 같다. 아침엔 쌀쌀한데 오후가 되니 급격하게 더워지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그런가?"라는 농담으로 강의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수업 분위기의 비결을 묻자 교수님께서 "특별한 비결이라기보다는, 저도 과거에는 똑같은 학생이었거든요. 그때를 연상하며 재밌게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제가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많이 웃더라고요. 수업에 활력이 된다면 좋은 거죠."라고 답하셨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이번 학기 동안 학생들이 이뤄낸 성장에 대해 묻자 "3월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벌써 소리부터 달라요. 저는 학생들을 물을 주는 대로 쭉쭉 자라나는 콩나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곡들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깊숙이 파고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맛을 보게 하는 것이 일단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후에 심연 깊숙한 예술세계의 맛을 보는 것이 순서라고 보기 때 문입니다."라고 하셨다. 한 학기 동안 폭넓은 곡들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커다란 성장을 이뤄낸 국악 관현악 수강생들. 그리고 이들의 성장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더 나은 연주자의 길로 이끌어 내고자 한 임재원 교수님. 지금까지 '꿈꾸는 나무'처럼 희망의 꿈을 꾸는 연주자들로 가득했던 임재원 교수님의 국악 관현악 강의실의 모습이였다.



강의실을 찾아서

진심과 성실함으로 이뤄낸 음악의 산교육

피아노 구조 및 관리 / 정재봉 선생님

Piano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by Mr. Jung jae bong

Piano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lass is held at 9:00 a.m. every Tuesday. This class has been taught for 17 years and is ranked as the longest surviving clas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e class is to teach students various theories and practice related to piano, like tuning, acoustics, and materials so that students may be fully capable in the nature and structure of piano. The lecturer of this class, Jae-bong Jeong, is also a chief piano tuner who is in charge of tuning all piano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successfully merges his on-the-job experience to the theories in the lecture and thus receives great support from students.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또 내 앞에 주어진 일을 작은 것에도 성실하게 해낸 것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해 주었죠.”

여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온 6월, 9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7년째 접어드는 서울대 음대의 최장수 수업인 정재봉 선생님의 피아노 구조 및 관리 수업 강의실을 찾았다. 마지막 종강 날인데도 불구하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강의실은 수업 열기로 가득했다. 특히 실제 서울대 조율사로서 실제 장비들을 학생들에게 하나씩 소개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경험해보게끔 유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인상 깊었다. 이것은 정재봉 선생님의 수업목표와도 연관된다. 정재봉 선생님께서는 “연주하는 학생들이 때로는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원리를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찾아서 생각날 때마다 수업 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아노를 학생들이 직접 꺼내서 보고 만져보고 실제로 조정하고 조율하는 것이 목표인데 실제로 학생들도 좋아하는 모습을 통해 보람을 얻습니다. 이론만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을 스스로 느끼게끔 경험을 해주고 싶은 것이 수업의 목표”라고 하셨다. 실제로 강의실의 현장을 찾은 이 날도 강의 초반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원리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끝내시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실제로 부속물들을 꺼내서 보여주시고 또 학생들이 직접 만지면서 느끼게끔 유도하셨다. 지금까지 연주만 해오던 학생들은 자신이 다루는 악기의 실체를 비로소 알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신기한 표정들로 가득하였다. 17년 째 매 학기마다 가장 먼저 마감을 기록하는 스타 강사로 이미 조선일보에 소개 된 선생님의 수업의 장점을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들어보았다. 서유정(작곡이론·14) 학생은 “이 수업을 통하여 피아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악기에 대해 이론적, 구조적으로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 바이올린을 전공했는데, 바이올린에 비해 피아노 악기가 훨씬 더 체계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혁주(작곡이론·14) 학생은 “특히 피아노과 학생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내가 만약 미리 알았다면 훨씬 더 도움 되었을 이론들을 많이 이번에 배웠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이 공통으로 꼽은 이 수업의 장점은 수업 이후에는 피아노의 기본적인 수리가 가능해 진다는 것

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인규(작곡이론·14) 학생은 “선생님께서 음악에 있어서 전체적인 악기의 원리를 설명해주신다. 소리만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시는데 특히 실전에서 뛰시는 조율사로서 실전 경험과 연관하여 더 잘 설명을 해주신다. 피아노 구조 및 관리2가 있었으면 또 듣고 싶을 정도로 수업이 좋았고 끝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수강소감을 통하여 선생님의 수업목표가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그 수업 목표가 한 학기가 마무리 될 때 성취되는 모습을 통하여 얼마나 선생님께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지 느껴졌다. 선생님께 오랜 시간동안 수업을 하면서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묻자 주어진 시간에서 실습 시간이 적은 것을 꼽으셨다. 모든 학생들이 스스로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에 비해 환경이 제한적인 것이 아쉽다고 하셨다. 그러나 한 학기 수업으로 만족하며 분명히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다.

선생님은 실제로 오랫동안 서울대 음대의 조율사로서도 수고하고 계시는데 조율사로서 음대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 묻자 피아노를 사용할 때 “음식물이나 음료수를 피아노 위에 두거나 옆지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고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시면서 학교 피아노지만 아끼는 마음으로 대해 달라고 부탁하셨다. 이를 통해 얼마나 선생님께서 피아노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또 학교에 대한 남다른 주인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이것은 선생님의 삶의 신념에서도 나타난다. 선생님께서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것이라도 성실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히 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였다.”고 하셨다. 서울대의 모든 피아노를 조율하며 수업까지 해 나가는데 땀뻑한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밤중이나 새벽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학생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최장수 수업을 있게 한 큰 힘이었다고 본다. 

콘서트를 찾아서

베토벤과의 동행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시리즈 / 최희연 교수님



“베토벤은 자에게 있어서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존재예요.
그는 고통 속에서도
절대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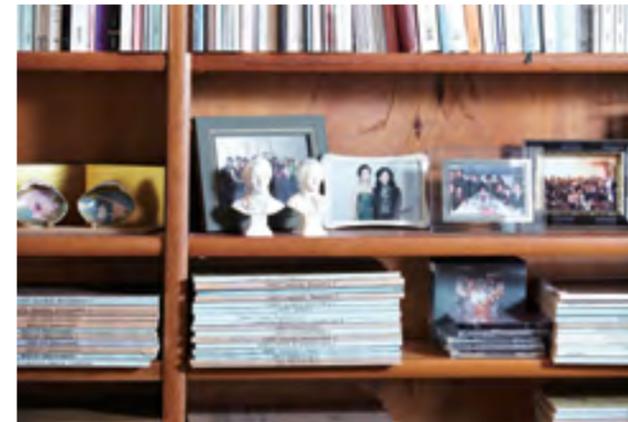
한국의 수많은 피아니스트 중 이토록 베토벤에 애착을 가지고, 베토벤만을 고집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을까. 그는 바로 '건반화가'라고도 불리는 최희연 교수이다. 베토벤과 그녀의 동행은 2002년에 시작되어 12년간 계속되었다. 2002년 4년에 걸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연주를 시작으로, 2011년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연주, 2012년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전곡연주, 현재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연주 두 번째 사이클에 있다. 12년 동안 한 작곡가에 빠져 그의 음악을 공부하고 연주하는 그녀의 열정은 대단하다. “시리즈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10여년씩 베토벤을 붙잡고 있으리라곤 생각도 못했죠. 한국 두곡 베토벤의 소나타를 공부하다 보니 무궁무진한 그의 작품들을 모두 다 연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그 어떠한 작곡가보다도 높은 이상의 희망을 노래하는

베토벤을 사랑했다. “어린 시절에는 베토벤의 인간사에 매료되어 그 영웅적인 에너지를 숭배했었죠. 2011년 피아노 트리오를 시작할 때는 베토벤에 대한 자세를 파트너들과 함께 공유하고 배우고 싶었어요.”

현재 수많은 피아니스트와 학자들이 베토벤을 연구하고 있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다루는 ‘악성 베토벤’을 어떻게 그녀만의 스타일로 녹여냈을까 궁금했다. “베토벤을 나만의 스타일로 녹여낸다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예요. 작품은 보통 작곡방식이나 구조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많은 작품과 적은 작품으로 나뉘죠. 베토벤은 그 중에서도 여지가 많은 작곡가예요. 이럴 경우 연주자가 자신의 스타일만 추구하다 길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베토벤은 해석의 여지를 주면서도

구조와 어법, 미학 등의 측면에서 분명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를 알지 못하고 자신만의 스타일만 고집한다면 설득력이 없는 음악이 되겠죠.” 그녀는 베토벤 앞에서 나약한 자신을 발견할 때면 그 괴리 가운데서 더 큰 매력을 느낀다고 한다. “그는 비겁하지 않아요. 그는 고통에 대해 신에게조차 구걸하는 법이 없죠. 베토벤의 숭고한 정신을 만나게 되면 그 옆에서 저는 한없이 나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토벤에게 더욱 큰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또한 “제 삶에 있어서 가장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베토벤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신과 대화를 하는 부분이에요. 괴로운 삶을 이끌어가다 생의 마지막에 고통을 승화시켜 신과 만나는 부분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이는 제가 추구하는 예술상과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Searching for Concert



©TIMF / 촬영 최명만

Interview: Prof. Hie-Yeon Choi

The reporter decided to meet Prof. Hie-Yeon Choi of the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 who just has had finished a complete performance of Beethoven piano sonatas, violin sonatas and piano trios. Now she is traveling to America, Germany and Sweden for the second complete cycle of Beethoven piano sonatas. Her future walk with Beethoven and his music is much anticipated.



최희연 교수는 지난 여름 미국, 독일, 스웨덴 등지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두 번째 사이클을 시작했다. 다시 베토벤을 바라보게 된 소감을 묻자 “아무래도 첫 번째보다는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전엔 정해진 프레임 안에서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지만 이번 사이클은 ‘가장 제 목소리 인 것’을 먼저 꺼내서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10년 넘게 베토벤을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어렵습니다. 베토벤의 미학은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고 아직까지 베토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학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베토벤은 음악아카데미 분야에서 교과서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최희연 교수는 무대 위의 연주자로서 대중과 소통하기를 원하기도 했지만 베토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오해해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시리즈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이것을 다행으로 생각할 만큼 제자사랑이 대단하다. “제자들이 공부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을텐데 베토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음악이 인류와 사회에 얼마나 막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깨닫고 자부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구요.” 또한 그녀는 자신의 역할 능력 여하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찾아 나섰으면 한다고 후배들에게 조언했다. “연주자로서 대중과 소통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획가나 연출가 등 자신이 예술인으로서 어떻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이제는 정리단계에 있어요. 일단, 현재 진행 중인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두 번째 사이클을 끝내는 것이 다음 목표이고 이 사이클이 끝나면 음원 녹음에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또한 앞으로 음악의 이상

을 실현하는 것, 곧 음악가로서의 이상을 풀어헤치고자 합니다.”라며 그녀의 최종 꿈에 대한 포부를 나타냈다.

12년간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바이올린 소나타, 피아노 트리오 전곡연주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은 최희연 교수. 앞으로도 피아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열정으로 대하는 그녀와 베토벤과의 동행이 기대된다.

음악대학
연구프로젝트
탐방

한국의 문화적 무늬(MUNI)를 찾아서

2013년도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 선정과제

“한국의 문화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한 음악 관련 자료 발굴 및 DB 구축:
1980년 이후 독일어와 프랑스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서양음악연구소



세계적인 작곡가의 반열에 오른 진은숙, 그녀의 작품은 유럽에서 얼마나 자주 연주되고 있을까? 작년, 세계 대중음악계를 뒤흔들었던 싸이, 외국에선 과연 실제로 그 인기가 어땠을까? 수많은 한국인 음악가들이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지금, 해외에서는 한국인 음악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 특히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말이다.

2013년 겨울, 220동 4층에 새 연구소가 신설되었다. 이름하야 음악대학 서양음악연구소의 '음악교류연구센터(MUNI, Research Centre for Music and National Identity)', 별칭 무늬. 이 연구소는 2013년 한국연구재단(교육부 산

하)의 학술·인문사회사업 중 토대연구지원에 선정되어 만들어졌다. 토대연구의 목적은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으로, 음악교류연구센터의 연구목적은 '한국의 문화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한 음악 관련 자료 발굴 및 DB구축: 1980년 이후 독일어와 프랑스어권 국가를 중심으로'이다. 이 연구는 작년 11월에 정식으로 시작되었고 앞으로 3년간 1980년 이후 독일어권과 프랑스어권 국가에서 펼쳐진 한국 출신의 음악가 및 음악단체들의 활동과 이와 관련된 정부의 문화외교 정책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류, 해제한다. 이러한 자료 수집을 통해 예술분야 종사자와 한국학자, 정책 입안자, 언론 등이 사용하기 편하고 학문간 연구로 이어지는 데 기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 한다.

질 좋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수집하는 자료들은 한국인 음악가들의 활동 및 정책뿐 아니라 독일어권과 프랑스어권 국가에서 접할 수 있는 한국의 음악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포함된다. 책, 논문, 악보 등의 서지자료, 공연과 강연, 시청각자료, 콩쿠르 입상 내역, 사진, 악기, 인물, 신문, 타 데이터베이스(링크), 인터넷 웹사이트 등, 한마디로 독일어권과 프랑스어권 나라에서 접할 수 있는 '한국과 한국음악의 모든 것'이다. 이는 한국의 음악 및 한국의 음악인들과 독일어와 프랑스어권 나라 사이에 이루어졌던 모든 교류활동이다.

Finding Cultural MUNI(Pattern) of Korea

Creating a DB of material in music from 1980 related to Korean image in German- and French-Speaking countries in Europe/Research Centre for Music and National Identity

A new research center has opened on the 4th floor of Building 220 in 2013 winter. The center is named the 'Research Centre for Music and National Identity' of the Western Music Research Institute of the College of Music of SNU, also known as MUNI. MUNI was established as a part of the basic research program of the funding project for academic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of the NRF(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in 2013. The goal of basic research is to create/construct a professional database and the research objective of the MUNI is entitled "Excavation and DB Construction of Music-Related Materials that Influenced the Cultural Image Formation of Korea: Focusing on the German/French speaking countries after 1980".



이 연구는 연구책임자 오희숙 교수, 공동연구원 이석원 교수가 이끌고 있으며 전임연구원 이장직, 신혜수, 서의석, 보조연구원 이용숙, 박갑선, 유선옥, 원유선, 토마 바께(Thomas Bacquet), 신예술이 한 팀으로 모였다. 독일어와 프랑스어권의 국가의 자료를 찾아야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독일어와 프랑스어, 음악교류 및 정책에 능통한 연구원들과 더불어 프랑스인 보조연구원(토마 바께)까지, 다양한 연구 인력이 한데 모여 열띤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가 시작된 지 채 1년이 안되었지만, 음악교류연구센터의 연구진들은 세 차례의 내부 세미나와 한 차례의 공개세미나(2014년 5월 24일<한국을 향한 시선: 한국의 문화예술이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를 개최했고, 데이터베이스

관련 교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고, 매주 최소 2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등 질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한국 출신 음악가들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독일어 및 프랑스어권 국가의 문화에 반영된 한국의 음악 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점검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문화적 이미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한국의 이미지에 기여하는 문화콘텐츠 개발자들에게도, 효율적인 문화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한국인 음악가로서 언젠

가는 직면하게 되는 정체성에 대한 물음들이 있다. '한국적인 음악이 무엇이나', '한국문화의 정체성은 어떤 것이냐' 등. 이에 대한 수많은 의견과 논쟁이 있지만 그 누구도 완벽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적어도 독일어와 프랑스어권 국가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이미지와 그 형성과정을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음악교류연구센터의 연구는 한국의 문화적 무늬(MUNI)를 찾아가는 그 기나긴 여정에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연구책임자: 오희숙 교수
공동연구원: 이석원 교수
전임연구원: 이장직, 신혜수, 서의석
보조연구원: 원유선, 신예술, 토마 바께, 유선옥, 이용숙, 박갑선



© CNL 레코드



잊지 않겠습니다

김정자 명예 교수님 추모글

Commemoration of Professor Emeritus Seon-Hwa Kim

Professor Emeritus Seon-Hwa Kim, who devoted her whole life to educating and loving students in the College of Music of SNU passed away on February 12th, 2014. She was appointed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of SNU in 1974 and since had lived a life of exemplarity with a duty and passion towards Korean traditional music, especially Jeongak(Court Music), and a warm heart and love towards her students. She has given us the lesson to always be benevolent to the younger generations and disciples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Korean Music.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평생을 진정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사랑하셨던 김정자(김선화 : 개명) 선생님께서 지난 2014년 2월 12일 소천 하셨습니다. 김정자 선생님은 1974년 서울대 음대 국악과에 부임하시어 2007년 정년퇴임하실 때까지 한국음악, 특히 정악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학생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으로 일관된 삶을 사셨습니다.

김정자 선생님은 전통음악 중에서도 특히 정악 분야를 평생 정진하시어 큰 획을 그으셨습니다. 1976년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고의 정악 전문 실내악 단체인 정농악회와 양금연구회, 전통가곡연구회 등을 결성하시는 등 한평생 정악 연주와 연구에 헌신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유작 정악 음반 '하늘과 땅 그리고 명상'과 '하늘을 향한 소리'는 정악 음반사의 한 획을 긋는 명반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선생님께 정악 레슨을 받으면서 가야금 정악의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었으며 정악이 무한한 정신세계를 품은 음악이란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정악 사랑은 참으로 범인은 범접할 수도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였습니다. 정악사랑의 마음에서 미래의 서울대 국악과 평가전공 기금교수를 위하여 금하 하규일 기금을 유치하셨으며, 서울시에 정가합창단 발족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셨습니다. 선생님의 이러한 정악에 대한 평생 일관된 헌신이 인정되어 며칠 전 국립국악원에서는 국악원 박물관의 근대 명인실에 선생님의 유품전시회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또한 국악의 발전을 위해 진행 장학금을 서울대 국악과에 유치하셨으며 본인도 사재를 털어 동은 이창규 가야금 장학금, 유영수 가야금 장학금을 기탁하셨습니다. 사후에는 선생님의 유족들이 선생님의 뜻 다 한 유언을 받들어 김선화(정자) 가야금 장학금을 기탁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많은 국악과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자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많은 추억과 감화를 주고 가셨습니다. 제자들 누구나 선생님과 있었던 즐겁고 가슴 잔잔한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에 돌아가신 후에도 모이면 선생님과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에 한참이나 수다를 떨고는 했습니다. 아무도 흉버 못할 선생님의 열정, 그 모든 것이 제자 사랑 그리고 한국음악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못 할 발걸음이란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선생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힘을 때 선생님께 받았던 많은 사랑과 격려들을 이제 우리가 제자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한국음악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해주고 하늘로 향하셨습니다. 🌸

이지영(국악과 교수)

언덕방

토대연구 스위스 방문기:

제트 분수처럼 제네바 하늘을 찌른 한국의 목소리

이장직 토대연구 전임연구원

외국 출장을 떠나기 전, 체류 기간 중 현지의 오페라극장, 콘서트홀, 미술관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는 미리 조사해둘 일이다. 지난 6월 말 '독일어권 및 프랑스어권 예술에 반영된 한국의 문화적 이미지 연구'의 일환으로 현지 자료 조사를 위해 방문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새삼 느낀 교훈이다. 관광 안내서에서 소개한 문화재나 유서 깊은 건물을 돌아보는 것도 좋지만, 음악을 전공했거나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별다른 준비 없이 현지에 도착해도 된다. 유럽은 도시마다 크고 작은 오페라 극장과 콘서트홀, 미술관이 있기 때문이다. 런던, 파리, 마드리드, 로마 같은 대도시라면 모를까 제네바는 한글로 된 관광 안내서도 없다. 제네바에서 며칠 지내기 위해 스위스 관광안내 책자를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제네바는 서울이나 런던, 파리, 뉴욕처럼 복잡한 도시는 아니다. 그렇다고 한적한 시골 마을은 아니다. 국제연합(UN)의 산하 기관 중 대부분이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프랑스어권이지만 시민 대부분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물가가 매우 비싸긴 하지만 시내 호텔에 투숙한 외국인에게는 시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급한다. 호반 도시여서 전망 좋은 곳에서는 제네바 호수의 명물 제트 분수(Jet d'Eau)를 볼 수 있다. 오페라 극장은 콘서트홀(빅토리아 홀)에서 50m 거리에 있다. 극장 앞 광장을 사이에 두고 제네바 음악원 건물이 보인다. 빅토리아 홀은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상주 무대이며 제네바 국제 콩쿠르가 열리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유럽의 오페라 시즌은 6월 말에 끝난다. 여름 여행이라 오페라 관람은 꿈도 꾸지 않았는데 다행히 도착 이튿날인 6월 28일에 시즌 마지막 공연이 있었다. 상연작은 카탈리니의 '라 왈리'였다. 여주인공 라 왈리가 1막에서 부르는 아리아 '난 멀리 떠나야 하네(Ebben? Ne andrò lontana)'가 유명하지만, 국내에서는 오페라 전 막이 상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1892년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되었지만, 알프스 산악 지대를 배경으로 한 이 오페라는 만년설과 빙벽, 낭떠러지가 무대 배경이기 때문에 무대 미술과 연출이 매우 까다로운 데다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등 주인공들이 상당히 많은 양의 아리아를 소화해야 한다. 레지타티보를 모두 노래로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극장 구경도 할 겸 라이브로는 처음 보는 오페라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전에 극장에 들러 티켓부터 샀다. 3층 발코니 앞쪽이었다. 출연진을 보니 친숙한 이름 석 자가 눈에 들어왔다. '테너 이용훈'

최근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 출신 음악가들의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는 서울대(94학번)와 뉴욕 매네스 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 런던, 파리, 빈, 밀라노, 뮌헨 등 세계 유수의 오페라 극장에서 주역으로 출연하고 있는 성악가다. 현재 활동상으로 본다면 한국 출신 중에는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테너가 아닌가 싶다.

'라 왈리'도 테너 이용훈의 노래도 라이브로 듣기엔 처음이었다. 데뷔 초기에는 로돌포(라보옌) 역에도 출연했지만 최근에는 리릭보다는 주로 스피노에 어울리는 카바라도시(토스카), 돈호세(카르멘), 만리코(일 트로바토레), 안드레아 세니에, 칼라프(투란도트), 투릿트(카발렐리아 루스티카나) 등에 출연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 이용훈은 사냥꾼 하젠바흐 역을 맡아 폭넓은 음역에 걸쳐 짙은 발성과 초점이 명확한 음정, 호소력 강한 극적인 처리로 객석을 가득 메운 청중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카탈리니는 푸치니의 동시대 작곡가다. 그의 관현악법은 푸치니보다 훨씬 강렬하고 복잡하다. 베리스모 계열에 속하는 이 오페라는 사랑과 질투, 복수로 점철돼 있는데 여주인공이 알프스 빙

Travel Essay: Switzerland by Dr. Jang-jik Lee

With great excitement and expectation to see a brand new opera in live, I stopped by the theater and bought the ticket first thing in the morning. A familiar three-syllable-name caught my eyes as I was looking at the casting; Tenor Young-hoon Lee. Lee is a famous singer whose name is ever present on the list of Korean musicians active in foreign stages. He graduated from the SNU College of Music (Class of 94) and continued his studies in Mannes College The School of Music and has been an active singer since in various opera stages and theaters around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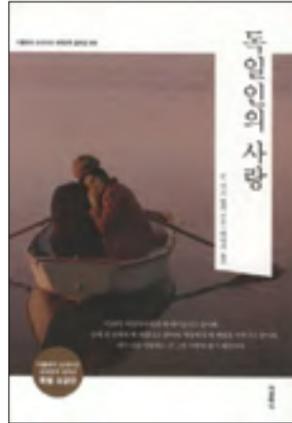
벽에서 떨어져 자살한다는 점에서 낭만주의 오페라의 전형적인 결말을 보여준다. 알프스 산맥의 끝자락에 넓게 펼쳐진 호반의 도시 제네바에서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시즌 피날레 공연에서 눈 덮인 알프스를 배경으로 한 오페라를 처음 보는 느낌은 매우 신선했다. 극장 안은 에어컨 시설이 없어서 관객들은 공연 내내 부채질하기에 바빴다.

로비에서 만난 한국인은 두 명뿐이었다. 알고 보니 한명은 그랑 테아트르에 근무하는 한국인 합창단원의 아내란다. 이튿날 빅토리아 홀에서 열린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공연도 가봤는데 일본인 수석 객원지휘자가 아시아 투어를 떠나기 전에 같은 프로그램으로 꾸민 무대였다. 로비에는 현지 교민 또는 주재원으로 보이는 일본인 30여명이 공연을 관람했다. 현지 영사관이나 일본 기업에서 자국 출신 지휘자를 응원하기 위해 초대권을 마련한 것 같았다. 한국인이란곤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라 왈리' 공연과 무척 대조적인 풍경이었다. 박수부대도 하나 없는 유럽 무대에서 고군분투하면서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테너 이용훈에게 음악인의 한 사람으로, 아니 서울대 선배로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다. 🇰🇷



책 읽는 음악가

독일인의 사랑 / 막스 뮐러



나는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다.
연주를 마치고 돌아와 그녀를 보며 말했다.
“이렇게 아무런 말없이 음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Book Review: Deutsche Liebe by Max Muller – Seong U Bak

The novel <Deutsche Liebe> was written by the German philosopher named Friedrich Max Müller (1823-1900) in 1857, the year in which the Romanticism was on its way to full ripening. He is also a son of the poet Wilhelm Müller, the composer of the poems “Winterreise”, which is better known as Schubert’s Lieder. Possibly due to his father’s influence, the novel is full of delicate and gossamer style.

소설 <독일인의 사랑>은 낭만주의가 무르익던 1857년, 독일의 철학자 막스 뮐러(Friedrich Max Müller, 1823-1900)에 의해 쓰여진 작품이다. 그는 슈베르트의 연가곡으로 유명한 “겨울 나그네”(Winterreise)를 쓴 시인 빌헬름 뮐러(Wilhelm Müller)의 아들이기도 한데, 그 때문인지 책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아름답고 정교한 문체가 인상적이다.

여느 복잡한 소설과 달리, 작품 속에는 오직 두 명의 등장인물이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주인공 “나”와 그가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부터 사랑한 병약한 소녀 “마리아”. 그리고 소설은 “나”의 회상을 통해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자칫 유치하거나 고리타분해 보일 수도 있는 ‘플라토닉 러브’, 그 둘 사이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결코 단순한 남녀 사이의 사랑 이야기만이 아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8개의 회상으로 구성된 글은 읽는 이로 하여금 동시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만들고, 그 어린 시절 우리 모두가 간직했던 ‘순수함’을 섬세한 언어를 통해 포착하기를 시도한다. 그래서 “첫 번째 회상”은 다음 문장으로 시작한다. “어느 누가 이 빛 바래고 부서진 장미 꽃잎을 다시 모아 상큼한 향기를 되살릴 수 있을까?”

‘순수함’을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무지함’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저자 막스 뮐러는 순수함의 원천으로 세속적인 관습과는 무관한 탄생부터 인간에 내재한 무한한 사랑에 주목한다. “어린 아이의 가슴에는 가장 순수하고 싶은 사랑이 깨어난다. 그것은 온 세상을 품는 사랑”인 것이다. 소설은 이러한 주인공 “나”의 순수한 사랑을 “마리아”라는 환상적인 대상을 통해 독자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결국 저자가 생각하는 ‘독일적인 사랑’이란 ‘순수한 사랑’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결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고, 그래서 “나”는 “왜 나를 사랑하지?”라고 묻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답할 수밖에 없다. “왜냐고? 마리아! 어린아이에게 왜 태어났냐고 물어봐. 들에 핀 꽃에게 왜 피었냐고 물어봐. 태양에게 왜 햇빛을 비추냐고 물어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뿐만 아니라 소설의 끝에는 예기치 못한 흥미로운 반전(?) 또한 존재한다. 또한 작품 전체에 걸쳐 음악이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는 것도 재미있는 요소인데, 실제로 막스 뮐러는 당시 작곡가 멘델스존과 자주 교류했다고 한다. 어쩌면 우리도 멘델스존의 ‘무언가’처럼 말이 없는 음악을 통해 마음 속에 간직한 가장 순수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박성우(음악과 이론전공 석사과정)



4인 4색의 그들

학생 연주팀 '울 스트링 콰르텟'

울 스트링 콰르텟(YUL String Quartet)

2012년 창단되어 2013년 아트실비아재단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아 대관령 국제음악제 음악학교에 참가했고,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Mc Gill International String Quartet Academy에 참가하였다. 2013년 9월 금호아트홀 영 체임버 콘서트에서 모차르트와 브람스, 바르톡의 작품을 연주하였고, 11월 서울대 음대 현악과가 주최하는 실내악 시리즈 일환으로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에서 베토벤 현악4중주를 연주하였다. Gerhard Schultz, Michael Tree, James Dunham, Martin Beavor, Stephan Forck, Koichiro Harada, Roberto Daiz, Keith Robinson, Tim Vogler로부터 마스터클래스를 받았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김영욱, 최은식, 백주영, 이경선 교수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Q. 안녕하세요?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울 스트링 콰르텟입니다. 저희 팀은 1st 바이올린 김혜진, 2nd 바이올린 장은정, 비올라 김지원, 첼로 허예은 이렇게 네 명입니다. 2012년에 결성되어 지금까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오늘 어떤 연습을 하고 계셨나요?

예: 무대와 객석 구분 없이 관객들이 가까이서 연주자의 숨소리를 들으며 함께 호흡하며 소통할 수 있는 하우스 콘서트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하우스 콘서트 전용홀인 '울 하우스'에서 6월 28일에 연주 할 예정이고, 오늘은 리허설을 위해 모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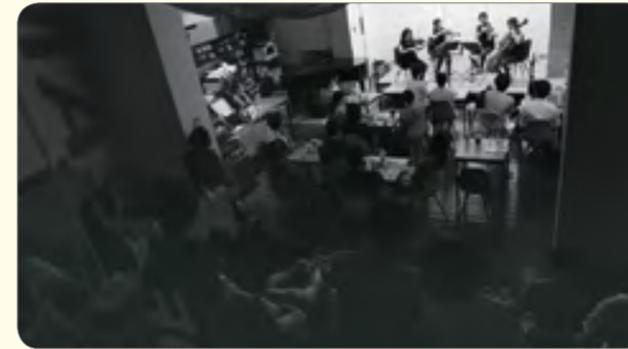
Q. 연습과 곡 선정에 있어 각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예: 저희는 캐릭터가 되게 확실해요.
혜진: 원래 대부분 콰르텟은 1st 바이올린이 연습을 주도하는데 저희는 안 그래요.
예: 첼로랑 비올라가 말을 많이 하고, 바이올린 둘은 상대적으로 조용해요. 그 부분이 저희 팀의 장점인 것 같아요.
혜진: 바이올린은 솔직히 음표만 해도 너무 많아서 바쁜데, 귀가 좋은 예은이와 지원이가 코멘트를 해주는 덕분에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곡 선정은 일단 콰르텟 곡들을 많이 아는 지원이가 들어보라며 범위를 추려주면 나머지 멤버들이 들어봐요. 은정이랑 저는 듣고 이 곡들이 좋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 혜진이가 딱 꽂히는 곡을 골라요.
혜진: 거의 확정을 짓는 건 제 역할인 것

Four Ladies, Four Colors, 'YUL String Quartet'

The YUL String Quartet was founded in 2012 and is counted as one of the best string quartets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embers, four beautiful ladies with musical prowess, said they were enraptured in performing the string quartets because they can never let go of the thrill that can only be experience on the stage. The members said they treasure and love each moment of performance.

같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제가 1st 바이올린이니 보니까 힘든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어떤 곡들은 비올라와 첼로의 역할이 힘들어요. '한 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고른 곡도 있었어요.(웃음)



Q. 연습 분위기는 어떤가요?

혜진: 오케스트라를 해도 3시간 수업에 15분은 쉬는데 여기는 쉬지를 않아요.

예: 하루에 7시간씩 연습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벌금제도 했어요. 그때는 목표가 확실하고 예민함이 최고였기 때문에 1분 늦으면 바로 전화로 '안 오냐?' 이랬었어요.(웃음)

은정: 저는 팀에 합류한지 얼마 안 됐는데요, 밖에서 볼 때는 방학 때 매일 와서 열심히 연습하는 팀이었어요.

예: (동기들이) 우리 연습실 문 앞이 싸하네요. 공기가 다르네요.

혜진: 연습실 주변을 오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심각하니까. 저희는 연습을 할 때 많이 해요.

예: 세 시간동안 일어나지를 않아요.

혜진: 화장실 갔다 오겠다는 얘기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말도 못하고 참다가 정말 가야할 때 갔다가만 와야 되요. 할 때는 하고 놀 땐 놀아요.

Q. 연습하면서 갈등은 없으셨나요?

예: 여자 4명이다보니 예민한 부분도 많고, 악기를 하면서 같이 한 공간에서 있다 보면 서로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얘기로 풀 때도 있고 무대에서 같이 연주하고 나서 연주가 정말 좋았을 때 풀릴 때도 있어요. 갈등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 같아요.

Q.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예: 연습할 때 잘 안되다가 무대에서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스트링 콰르텟만의 매력이지. 저희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현악기라 무대 위에서 음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연습할 때 잘 안되다가 무대에서 맞아떨어지면 공중에 뜬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짜릿한 순간이 무대에서 나타나면 그때 제일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넷이 함께 연주하는 매 순간순간이 소중한 겁니다.

Q. '울 스트링 콰르텟'이 추구하는 음악은?

예: 저희는 항상 무대에 올라가서 즐기라고 말해요. 즐겁게 음악하고, 우리끼리도 즐겁게 음악하자고. 그런데 잘해야 즐길 수 있지 않겠어요?(웃음)

혜진: 이 생각은 다들 같아요.

예: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해요. 연습하다가 싸우고, 연습하다 즐겁고. 또다시 싸우다가 너무 힘들어서 가끔씩 '이거 너무 하기 싫다' 할 때가 한 번씩 꼭 생기거든요?

혜진: 맞아.

예: 그런데 무대 올라가서 연주하고 내려오면 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Q. 마지막으로, 나에게 '울 스트링 콰르텟'이란?

혜진: 제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악기 연습에 있어서 전 되게 자유롭거든요? 그런데 공동체 생활인 스트링 콰르텟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연습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혼자서는 이 정도 밖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통해 사고의 범위를 넓혀 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이 저를 제일 잘 알아줘서 좋아요. 대학 생활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에요. 저희 팀의 제일 좋은 점은 같은 학교, 같은 학년, 같은 나이 라는 것?

은정: 연습의 집중력이 남다른 팀이에요. 연습하면서 많이 배워요.

지원: 2학년 때부터 거의 올인을 했으니깐 대학생들의 전부인 것 같아요. 또한 콰르텟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워요. 비올라는 특히 고전 레퍼토리가 거의 없어서 하이든, 모차르트 그리고 베토벤을 공부해 볼 기회가 흔치 않은데, 스트링 콰르텟을 통해서 폭 넓게 배우는 것 같아요.

예: 애증관계도 섞여있고, 하면서 많이 배웠고, 스스로 스트링 콰르텟을 하면서 개인 실력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유학도 생각하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더군요. 같이 가고 싶고, 이제는 친구라기보다는 가족이에요.

소리를 감싸는 울타리, '소리울'

학생 연주팀 '소리울'

Fence that Wraps around the Beauty of Sound, 'SORIWOOL'

SORIWOOL is an ensemble group aiming to perform Korean Traditional Music in a way more easily approachable to the general public while preserving the very traditional musical grammar and performance techniques. SORIWOOL is now preparing to perform in 'Chun-Cha-Man-Byul Concert' which will be held in Bukchon Changwoo Theater from September 25th to 26th, and I visited SORIWOOL members, who gathered together to co-compose the background music for the scenes from the Korean traditional story "Kyun-Woo and Chik-Nyo".



소리울은 소리를 감싸 안는 울타리라는 뜻으로 대중과 우리음악의 중간, 그 접점에서 서로의 거리를 좁히며, 마음을 열 수 있는 다양한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께 다가가려는 저희의 꿈을 담은 이름입니다. 다양한 악기와 작곡, 성악으로 구성된 소리울은 노랫말이 있는 음악을 통해 관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쉬운 의미전달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소리울은 우리나라 3대 성악 중 하나인 정가를 주 모티브로 하여 과거에는 널리 불렸지만 잊혀 가는 우리의 시조, 가곡의 가치를 알리고, 대중들이 이를 좀 더 가깝게 여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담장이 아니라 울타리처럼 정겨운 경계가 되고 싶은 팀, 소리울입니다.

소리울(SORIWOOL)



Q. 안녕하세요?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영: 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소리를 감싸는 울타리, 소리울입니다. 저는 소리울의 리더이자 가야금을 맡고 있는 이다영입니다. 저희 팀은 해금 김은영, 타악 고경화, 대금 임정민, 작곡 김영상, 정가 장명서, 거문고 박다울, 아쟁 김 경, 피리 이근재 이렇게 9명입니다. 소리울은 전통적인 어법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대중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국악을 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언제부터 '소리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연습하셨나요?

은영: 저희 통장비밀번호가 결성날짜예요. 작년 7월에 결성되었습니다.
다영: 이전에도 실내악 팀을 결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는 국악팀, 현악팀, 관악팀을 선발한다는 공고였는데, 지원하기 위해 팀을 결성하였고 선발되어서 지금까지 함께 연습하고 있습니다.

Q. 오늘 어떤 연습을 하고 계셨나요?

다영: 얼마 전 북촌 창우극장에서 젊은 국악인으로 결성된 팀들을 대상으로 열린 오디션에 통과하게 되어, 9월 25-26일에 북촌 창우극장에서 열리는 '천차만별 콘서트'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견우와 직녀' 이야기가 중심이며, 오늘은 각 장면에 맞는 음악을 공동창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Q. 연습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경화: 다들 성격이 무뎠해서 연습할 때 갈등은 없어요.
다영: 다만 인원이 많고, 각자 일정도 있다 보니 시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점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영상: 지각도 하고요.
은영: 그래서 저희가 지각비를 걷었어요. 1분에 500원이었나? 그리고 불참하면 4만 원을 걷었어요. 그래서 경화가 초창기에 '소리울' 자금을 큰 도움을 주었죠.(웃음)
경화: 그렇게 많이는 안 낸 것 같은데..
다영: 그래?
은영: 안 온 것만 이틀이라서 총무인 저에게 봉투를 줬어요.
다 같이: (웃음)

Q. 가장 기억에 남는 연주는?

경화: 첫 연주였던 오디션이요.
영상: 저도 그렇습니다.
경화: 진짜 떨렸어요. 하나의 곡으로 만들어진 작품 연주는 처음이었어요. 20분 동안 '사랑, 외로움 그리고 이별'이라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서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Q. '소리울'이 추구하는 음악은?

경화: 저희 팀은 작곡가(영상)의 창작곡을 주로 연주 하지만, 전통 곡에서 소스를 가져오거나 상황에 맞는 멜로디를 즉흥적으로 만드는 공동 창작 작업을 거쳐 완성된 작품들도 연주합니다. 또한 기악만으로 이루어진 다른 팀들에 비해 저희는 정가를 담당하는 멤버가 있어 노랫말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이 저희 음악의 특징입니다.
영상: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악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대중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음악을 하려고 합니다.

Q. 마지막으로, 나에게 '소리울'이란?

경화: 실험실. 창작활동을 함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 어때?'라고 하며 해보자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 생각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다영: 이름표. 저에게 소속감을 주고 제 정체성도 느끼게 해주는 곳입니다.
정민: 가능성.
영상: 영감의 원천.
명서: 무지개. 7가지 색깔을 모아 놓으면 안 섞일 것 같은데, 모아놓으면 예쁜 것? '소리울'은 무지개 같아요.
다영: 공동체. 처음에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자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연주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팀과 관객과의 만남보다 팀원들과의 만남이 제겐 더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연습하면서 무엇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더 크지,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과정이 더 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공동체 같은 느낌? 기운 빠질 때 '소리울'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졸업생을 찾아서

우리의 소리를 세계에 알리는 그날까지

경기도립국악단 해금단원 박경숙



Alumna Kyung-Suk Park, Gyeonggi Provincial Traditional Music Orchestra Mistress of Haegeum

On July 9th, I was able to meet Ms. Kyung-Suk Park, class of 87 of the College of Music, who just finished practice and was on her way out of at Gyeonggi Arts Center. She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of the College of Music of SNU and held the position of the Senior Haegeum in Gyeonggi Provincial Traditional Music Orchestra. She now is a standing member of Gyeonggi Provincial Traditional Music Orchestra and the concertmistress of the Min Hwa Traditional Music Orchestra. She said her dream is preserving the tradition of Korean Music and leading the globalization of Korean Music at the same time, It is with great expectation, I look forward to her future activities and efforts in fulfilling her dream.

7월 9일, 경기도국악당에서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 87학번 박경숙 선배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과정과 러시아 국립음악아카데미 그네신 석사과정을 마쳤다. 또한 경기도립국악단 해금단원 수석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경기도립국악단의 상임단원이자 민화국악관현악단의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에게 경기도립국악단 단원의 하루 일정을 묻자 “매일 출근해서 전체 관현악단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는 경기도국악당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악강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라며 사람들에게 국악을 알리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습을 위해 직접 교재를 출판하기도 했다. “국악기가 배우기 쉽지 않잖아요, 교재는 전문가용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배우기 쉽게 ‘박경숙의 어린이 해금’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경기도립국악단 활동뿐만 아니라 ‘박경숙의 해금속으로’ 시리즈를 포함한 8회의 독주회를 하는 등 연주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또한 그의 음악적 가치관을 보여주는 <박경숙의 해금정악 풍류 ‘영산회상’>과 <세계 속의 한국음악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박경숙의 해금속으로’>라는 음반도 녹음했다. “저는 ‘전통음악’과 ‘한국음악의 세계화’라는 두 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연주활동을 합니다. 퓨전이나 현대음악만 하면 뿌리가 무엇이 있는지 잊어버리게 되요, 그래서 전통음악 발표회를 따로 합니다. 또 저는 ‘한국음악의 세계화’를 이뤄내고 싶은 꿈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게 오케스트라잖아요, 그래서 첫 독주회부터 해금 협주곡 ‘추상’이나 ‘아리랑’과 같은 곡들을 통해 서양음악오케스트라와 해금의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대학에 입학했던 87년도부터 ‘소리사위’라는 국악실내악단 활동을 시작했다. “소리로써 사위를 하겠다는 뜻이 있어요, 그 때 같이 활동했던 분들은 현재 한예종의 원유교수님, 서울시청소년관현악단의 유경화 선배님, 북촌창우극장 극장장인 허윤정 선배님 그리고 국악가수 김용우 씨입니다.” 소리사위는 ‘민족극 한마당’이라는 연극제에서 유일하게 음악극을 발표했다. “신경림 선생님의 ‘세재’라는 시를 음악으로 연주 하면서 동시에 연극을 했습니다. 음악감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공동창작을 했죠. 어떤 표현이 좋을지, 어떤 악기가 좋을지에 대해 역할분담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라며 그때의 즐거움을 추억했다. 또한 “유네스코 주최로 민족음악의 교류를 위해 일본에 많이 다녀왔어요. 홈스테이를 통해 일본 문화를 겪어볼 수 있어 신선했습니다. 일본 대학에는 국악과가 없어 국악 동아리와 교류했고, 인간문화재 선생님들과도 교류했습니다.”라며 소리사위 활동을 통해 넓은 시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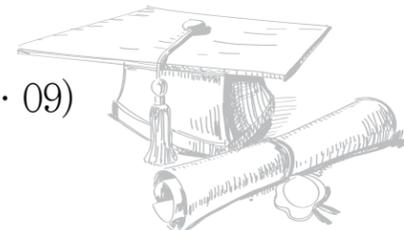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연주자를 꿈꾸는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구하자 “단순히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보다는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음악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자신이 음악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연주할 곳은 자신이 찾아야합니다. 아주 작은 연주라도 귀하게 여기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보면 음악활동이어나갈 수 있는 끈이 생길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전통음악도 지키면서 한국음악의 세계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꿈이라는 해금 연주자 박경숙 선배님. 선배님의 다방면에 걸친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박사논문 소개

죄르지 쿠르탁의 피아노작품집 《야테곡》 연구

홍인경(박사 · 09)



'Research on György Kurtág(1926-)'s <Játékok>- Modern Realization of Artistic Imagination' / In kyung Hong

My doctoral thesis 'Research on György Kurtág(1926-)'s <Játékok>- Modern Realization of Artistic Imagination' is an extensive study on Kurtág's piano pieces <Játékok> in various perspectives. In order to discover accurate and meaningful ideas from the research, I analyzed <Játékok> in terms of three different but related perspectives: program aspect, performance aspect and acoustic aspects and contemplated on Kurtág's philosophy in composition.

나의 박사논문 '죄르지 쿠르탁(György Kurtág, 1926-)의 피아노작품집 《야테곡》(Játékok 1973-) 연구-예술적 상상력의 현대적 발현'은 쿠르탁의 피아노 작품집 《야테곡》을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한 것이다.

쿠르탁은 헝가리 출신으로 자신만의 독자적인 음악어법을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국내에 생소한 작곡가이다. 《야테곡》은 쿠르탁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적어 놓은 작곡 스케치북과 같은 역할을 하여 그의 자유롭고 독특한 음악관이 작품집에 잘 나타난다. 또한 새롭게 시도된 독특한 기보법 및 주법을 통해 피아노에서 구체화된 그의 음악어법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로 봤을 때 《야테곡》은 쿠르탁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작품집으로서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었다. 지금까지 출판된 《야테곡》전 8권은 한, 두 장 혹은 한, 두 마디의 매우 짧은 작품들이 300여 곡 넘게 구성되었는데, 이 작품집의 방대한 양의 곡들의 분석 및 분류, 이를 바탕으로 작품집을 바라보는 일관된 초점을 유지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 나는 피아노 작품집 《야테곡》을 표제적 측면, 연주실제적 측면, 음향적 측면의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쿠르탁의 작품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야테곡》을 표제, 연주실제, 음향적 측면에 따라 나누어 본 이유는 이 세 가지 관점이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야테곡》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으로 표제는 작품의 음악적 내용을 암시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음으로 연주실제적 측면은 연주자가 작품을 실제로 연주할 때의 퍼포먼스 차원의 문제로서 살펴봐야 할 작품의 필수적인 요소였다. 마지막으로 음향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통해 만들어진 음향이 어떻게 피아노로 구

현되는지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야테곡》에는 피아노의 음향 그 자체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시도가 나타난 작품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별 작품들의 분석연구를 통해 나는 《야테곡》에 나타나는 쿠르탁의 피아니즘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작품집 전체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연주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를 통해 살펴본 《야테곡》은 전통과 현대를 모두 포괄하고 개별 악곡들의 뚜렷한 상징과 함축성, 독자적인 작품의 논리를 보여주는, 작곡가의 예술적 상상력이 현대적으로 발현된 중요한 작품집이다. 또한 작품집의 유희적이고 함축적 성격과 프로그램 작곡, 연주자의 해석적 상상력과 퍼포먼스적인 요소, 그리고 여러 주법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음향 등의 요소들은 피아노의 가능성을 확장시켜 현대 피아노 작품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 시도된 연주자 입장에서 작품분석을 통해 나는 생소한 작품인 《야테곡》을 소개하고 연주자들에게 연주를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2014년도 1학기 콩쿠르 입상자

| 성악과 | | |
|------|--------------|---|
| | 황수미(04) |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1위 |
| | 박혜상(07) |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5위 |
| 소프라노 | 이혜진(12) | 이화경향음악콩쿠르 대학일반부 성악(여)부문 2위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성악 대학일반부 장려 라벨라 성악콩쿠르 대학일반부 1, 2위없는 3위 |
| | 길윤수(12) | 음악춘추콩쿠르 여자대학부 2위 |
| 테너 | 김승직(09) |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파이널리스트 |
| 바리톤 | 정재원(09) | 2014 양산 제 12회 엄정행 전국 성악 콩쿨 대상 |
| 국악과 | | |
| | 고보석(10) 박사수로 | 제14회 명창 박록주 전국국악대전 대통령상 수상 |
| 거문고 | 박다울(11) | 제17회 울산광역시 전국국악경연대회 금상 |
| | 류관우(11) | 제30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거문고부문 금상 |
| | 문 숙(14) | 제30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거문고부문 은상 |
| 가야금 | 백승희(10) 박사수로 | 제24회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 최우수상 |
| | 박다솜(10) | 제30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가야금부문 금상 |
| | 김세영(11) | 제30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가야금부문 은상 |
| | 추현탁(12) | 제17회 울산광역시 전국국악경연대회 은상 |
| 대금 | 임정민(10) | 제3회 영암 김창조 전국 국악대전 종합대상 |
| | 김태현(13) | 제34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대금부문 동상 |
| 해금 | 박소영(13) | 제30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해금부문 은상 |
| 피리 | 이예나(12) | 대전전국국악대회 3등 |
| 작곡 | 김영상(12) | 제30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작곡부문 은상 |
| | 정가 | 김대윤(12) |
| 판소리 | 고준석(11) | 제40회 전주대사습놀이 3등 |
| | 이진우(11) | 제30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판소리부문 금상 |
| 아쟁 | 김용성(11) | 제40회 전주대사습놀이 기악부 차상 |
| | 김재훈(11) | 제30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아쟁부문 은상 |

| 기악과 | | |
|------|--------------------|--|
| | 노예진(박) | 제 3회 다카마쓰 국제 피아노 콩쿠르 3등 |
| 피아노 | 박연민(석) | 제 30회 중앙음악콩쿠르 1위 2014 Piano FVG International Competition Special prize of Beethoven Sonata The 4th Luciano Luciani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2nd Prize and Special Honors |
| | 최영선(13) | 제19회 음악춘추 콩쿠르 1위 제44회 삼익-자일러 피아노 콩쿠르 2위 제 9회 영산음악콩쿠르 전체대상 |
| | 우용기(14) | 제 17회 한국 쇼팽 콩쿠르 1위 제 20회 수리 음악 콩쿠르 2위 |
| | 윤정현(14) | 제 44회 삼익-자일러 피아노 콩쿠르 1위 |
| 바이올린 | 김계희(13) | 2014 중앙음악콩쿠르, 1위없는 2위 |
| 첼로 | 김동택(14) | Liezen International Competition 2014 2위 부산음악콩쿨 3위 |
| 하프 | 서이원(13) | 2014 서울바로크합주단 제15회 전국음악콩쿨 하프부문 3위 |
| 실내악 | 유정민(13) | T&B 콩쿠르 1위 |
| | 장윤화(13) | |
| | 백현경(13) 홍은주(14) | |
| 호른 | 고영종(14) | 2014 제31회 부산음악콩쿠르 호른부문 2위 |
| 바순 | 전지수(13) | 2014 (사) 한국음악협회 해외파견 콩쿠르 바순부문 2위 |
| | 김소연(14) | 2014 (사) 한국음악협회 해외파견 콩쿠르 바순부문 3위 |
| 트럼펫 | 안석영(13) | 2014 (사) 한국음악협회 해외파견 콩쿠르 트럼펫부문 1위 |
| 오보에 | 이인영(13) | 2014 (사) 한국음악협회 해외파견 콩쿠르 오보에부문 3위 |

교수동정

성악과 Department of Vocal Music

작곡과 Department of Composition

| 작곡전공 Composition Major |

서혜연 교수,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 주최한 제 84회 춘향제 공연 '세기의 사랑가'에 출연

Prof. Seo, Hye-Yeon, played a role in the "Serenades of Century" in the 84th Chun-hyang Festival hos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5월 20일 전주 삼성 문화회관에서 테너 이원준 교수와 함께 '봄날의 동행' 듀오 콘서트와 6월 14일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 주최한 제 84회 춘향제 공연 '세기의 사랑가'에 출연하였다. 또한 8월 7일 평창콘서트홀에서 열린 '2014 국립오페라단-오페라여행'에서 투란도트 독창자로, 한국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에서 주최한 2014 평창 스페셜 뮤직 페스티벌의 성악부문 멘토로 참가하였다. 평창 스페셜 뮤직 페스티벌은 전 세계 지적, 자폐성 장애 아티스트들이 언어와 장애의 장벽을 넘어 음악으로 소통하는 뮤직 페스티벌이다.

연광철 교수, 2014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오페라 '탄호이저',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발퀴레'에 출연

Prof. Youn, Kwang Chul, played in the operas 'Tannhauser', 'Der Fliegende Hollander', and 'Die Walkure' in the 2014 Bayreuther Festspiel.s.

1월에는 독일 뮌헨에서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중 달란트 역을, 2월에는 이태리 밀라노 스칼라에서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중 페르난도 역을, 4월에는 독일 뮌헨에서 오페라 '파르지팔' 중 구르네만츠 역을, 6월에는 독일 드레스덴에서 오페라 '시몬 보카그네그라' 중 자코포 피에트로 역을 담당하였다. 이어 7월에는 2014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는 보통 성악가들이 할 수 없는 짧은 기간 안에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여 연주하였다. 오페라 '탄호이저' 중 헤르만 영주 역을,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중 달란트 역을, 오페라 '발퀴레' 중 훈딩 역을 맡고 있다.

전승현 교수, '독일 바이로이트 바그너페스티벌' 에서 '신들의 황혼'의 '하겐' 역으로 출연

Prof. Attila Jun, played 'Hagen' in the opera 'Die Götterdämmerung' in the 2014 Bayreuther Festspiel.

4월 1일자로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임명되었다. 5월 21~ 24일 까지 서울시 오페라단 '미탄의 사수' 중 에레미트 역 4번의 공연과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오페라하우스'에서 6월에 '신들의 황혼'의 '하겐' 역으로 공연하였다. 7월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오페라하우스'에서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마르케 왕' 역, 8월 '독일 바이로이트 바그너페스티벌' 에서 '신들의 황혼' 중 '하겐' 역을 맡고 있다.

정태봉 교수, 타악기 그룹 4plus 제20회 정기연주회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작곡한 '진혼 II' 초연

Prof. Chung, Tai-Bong, premiered his 'Requiem II' composed in appeasement of the souls of victims from Sewol-Ho Tragedy in the 20th regular concert of the percussion group '4plus'.

제10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피아노 부문)의 과제곡 위촉에 의해 작곡된 정태봉 교수의 '피아노를 위한 송례문(Sungnyemun for piano)'이 3월 18일부터 30일까지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이 콩쿠르의 참가자들에 의해 연주되었다. 4월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 서울시합창단 제34회 정기연주회에서 정태봉 교수가 오래전에 합창곡으로 편곡했던 5편의 한국가곡들-산유화(김성태 작곡), 산길(박태준 작곡), 산(하대웅 작곡), 산들바람(현제명 작곡), 제비(조두남 작곡)-이 연주되었다. 그리고 7월 19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 타악기 그룹 4plus 제20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정태봉 교수가 작곡한 '진혼 II'가 초연되었다.

전상직 교수, 저서 <음악의 원리>를 발간

Prof. Sangjick Jun, published <Principles of Music>.

6월 2일 베를린에서 전상직 교수의 4 Compositions with 3 interludes for string trio가 연주되었다. 7월 15일에는 김현경 독창회에서 가곡 새봄의 기도, 풀잎의 노래가 연주되었다. 그리고 8월 22일 예술의 전당에서 부친필하모닉의 연주로 Credo for orchestra가 연주되었다. 또한 저서 <음악의 원리>를 발간하였다. (음악춘추)

최우정 교수, "뮤지컬 오페리아"의 작곡가로 참여

Prof. Uzong Choe, participated in the musical "Ophelia" as a composer.

5월 16일에서 2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열린 "뮤지컬 오페리아"의 작곡가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5월 26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린 STUDIO2021 - '구바이돌리나와 동시대 음악가들'에서 최우정 교수의 작품 <Salmos>가 연주되었다.

작곡과 Department of Composition

이돈웅 교수, 문화관광부 주최 ‘문화테크놀로지포럼 2014’에서 ‘디지털국악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 그리고 세계화’란 주제로 ‘국악 가상악기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하여 발표
 Prof. Donoung Lee, gave a presentation on ‘Development of Virtual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and applications’ under the topic of ‘Popularization and Globalization of Korean Music through Digitalized Technology’ in the Culture Technology Forum 2014 hos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5월 11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 Korean Music Project 음악회에서 거문고와 전자음향을 위한 검은학(ver. 2014)이 연주되었다. 그리고 5월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문화관광부 주최 Culture Technology Forum 2014에서 ‘디지털국악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 그리고 세계화’란 주제로 ‘국악가상악기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이신우 교수, 커티스 음대 하계 강좌에 교수진으로 초청
 Prof. Shinuh Lee, was invited as a faculty member of the summer courses in the Curtis Institute of Music.

3월 21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 2014 채리티체임버앙상블 정기 연주회에서 〈Paul, a man of Grace and Grit〉for piano quartet이 연주되었다. 4월 13일에는 오스트리아 Wien Konzerthaus Berio Saal에서 열린 Der Klang von Gottes Wort에서 〈An Open Door〉이 유럽 초연되었다. 4월 28일 일신홀에서 열린 아츠 페스티벌 디멘션 2014에서 〈Lament, the Daughter of Zion〉이 세계초연되었다. 같은 곡이 5월 26일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에서 열린 STUDIO2021 - 구바이둘리나와 동시대 음악가들에서 연주되었다. 7/21-26 커티스 음대 하계 강좌에 교수진으로 초청되었다. 8월 2일 미국 프린스턴의 Scheide Hall에서 열린 Theological Seminary에서 〈Chorale Fantasies No. 1-3 (selected pieces)〉for piano이 연주되었다. 8월 24일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에서 이신우 교수의 〈Psalm Sonata〉for violin and piano가 세계 초연되었다.

Roland Breitenfeld, 아울로스 목관5중주 제29회 정기연주회에서 목관5중주 작품 아울로스 목관 5중주의 위촉으로 초연
 Prof. Roland Breitenfeld, premiered his wind quintet piece “Where Shall We Meet Again” upon the request of the Aulos Woodwind Quintet in the 29th regular concert of the Aulos Wood wind Quintet.

4월 6일 독일 Freiburg의 Café artjamming Freiburg에서 작품 “Einblick II Version für Fagott und Vibraphon”이 연주되었다. 4월 30일에는 서울대학교 MoA에서 열린 “RÉVÉLATION” 에서, 그리고 5월 11일에는 국립국악원에서 열린 “Korean Music Project : 전통악기와 전자음향의 만남”에서 전자음향 감독을 맡았다. 또한 5월 13일 창단 25주년 기념 아울로스 목관5중주 제29회 정기연주회에서 Wind Quintet “Where Shall We Meet Again”이 아울로스 목관 5중주의 위촉으로 초연되었으며, 6월 1일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WORK IN POGRESS” 공연에서는 3 Szenen aus seiner Oper “DER KLEINE PRINZ”가 연주되었다. 그리고 8월 26일 독일 Karlsruhe의 Zentrum für Kunst und Medientechnologie에서 열린 Gerard Grisey: “Les Chants de l’Amour” für 12 Stimmen und 4-kanaliges Tonband의 전자음향 감독을 맡았다.

| 지휘전공 Conducting Major |

김덕기 교수,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오페라 〈천생연분〉지휘
 Prof. Docki Kim, conducted the opera <Chunsaengyunbun> in the Korean Opera Festival.

김덕기 교수는 지난 5월 31일과 6월 1일 양일간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오페라 〈천생연분〉의 지휘를 맡았다.

작곡과 Department of Composition

| 이론전공 Music Theory Major |

이석원 교수, 서울대병원 MEG센터 연구팀과 공동저술한 논문 뇌과학 전문학술지에 게재
 Prof. Yi, Suk Won, his joint research with the MEG Center Research Team of SNU Hospital “Melody effects on ERANm Elicited by harmonic irregularity in musical syntax” has been selected and published in Brain Science Academic Journal ‘Brain Research’.

1월 2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음악과 신경과학”을, 2월 28일 서울대학교병원 이진희 홀에서 열린 2013 Biomagnetics 학술대회에서 “Musicking Brain”을 강연 하였다. 4월에는 서울대병원 MEG센터 연구팀과 공동저술 논문 “Melody effects on ERANm elicited by harmonic irregularity in musical syntax”이 뇌과학 전문학술지 Brain Research에 게재되었다. 그리고 저서 <음악인지과학>이 “2014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2014년 6월, 대한민국학술원). 또한 2016년 7월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국제음악학회(International Musicological Society) 학술대회 <Music as Art, Artefact and Fact: Musicology in the 21st century>의 Programme Committee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민은기 교수, 공저 <서양음악사 1>(음악세계) 출간
 Prof. Min, Eungi published <Western Music History 1>(Co-author).

민은기 교수는 역시 <음악학개론>(음악세계)과 공저 <서양음악사 1>(음악세계)을 출간하였다.

오희숙 교수, 국립대만대학교에서 초청강연
 Prof. Oh, Hee Sook was invited as a guest speaker and lectured ‘Contemporary Music in Korea – A Focus on Un-Young Na, Ensu Kang and Tae-Bong Chung’ in National Taiwan University.

지난 5월 24일 서울대 서양음악연구소가 주최하는 세미나 “한국을 향한 시선: 한국의 문화예술이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Gaze towards Korea: Music and National Identity)의 기획 및 진행을 맡았다. 또한 6월 6일에는 국립대만대학교(National Taiwan University)에서 “Contemporary Music in Korea – A Focus on Un-Young Na, Ensu Kang and Tae-Bong Chung”에 대하여 초청강연을 하였다.

기악과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

| 피아노 전공 Piano Major |

Aviram Reichert 교수,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열리는 Music in the Mountains Festival에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협연
 Prof. Aviram Reichert performed Beethoven’s <Piano Concerto No. 5 in E flat Major, Op. 73 ‘Emperor’> as a soloist with the Festival Orchestra in the Music in the Mountains Festival in Colorado, USA.

지난 2월 26일, 제2회 한국 스타인웨이 콩쿠르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3월14일에는 광주에서 광주심포니 오케스트라와 <S.Rachmaninoff Piano Concerto No.2 in C minor, Op.18>를 협연했다. 4월 16일에 천안, 4월 21-29일 일본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등지, 4월 30일에는 서울에서 첼리스트 송영훈과 콘서트 투어를 가졌다. 5월 2일에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교수와 함께 연주했다. 6월 25일에는 피아니스트 유영욱, 이미연, 최영미와 함께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함께 연주했다. 7월 12-20일에는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열리는 Music in the Mountains Festival에서 독주회, 챔버 콘서트를 가졌고,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L.v.Beethoven Piano Concerto No.5 in E flat Major, Op.73 ‘Emperor’>를 협연했다.

주희성 교수, 신시내티 ‘세계 피아노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초청
 Prof. Hee-Sung Joo was invited as a judge for the Cincinnati World Piano Competition.

4월 7일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초청으로 “2014 Spring Concert Series”에서 주희성 피아노 독주회를 가졌으며, 5월 29일 부산대학교 음악연구소 초청 엔리코 엘리시 교수와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가지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가졌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6월 23일부터 28일 신시내티 World Piano Competition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았고 연이어 신시내티 대학 Art of the Piano 페스티벌에서 마스터클래스와 콘서트를 가졌다. 7월 15일부터 27일까지 이태리의 Amalì Coast International Music Festival에 초청되어 마스터클래스를 가졌고 7월 19일 Mayron Tsong과 함께 교수음악회를 가졌다.

기악과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

최희연 교수, '2014 교향악축제'에서 울산시향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 협연

Prof. Hie-Yeon Choi, performed Beethoven's Piano Concerto No. 3 as a soloist with Ulsan Metropolitan Symphony Orchestra in the 2014 Korean Orchestra Festival.

1월 18일과 1월 24일 독일 Trier Museum am Dom, 스웨덴 Halmstad St. Nikolai Kirkan에서 두 차례의 독주회를 가졌다. 3월 20일과 21일에는 첼리스트 Tsuyoshi Tsutsumi와 금호아트홀의 기획공연인 아름다운 목요일 Viennese School 시리즈에 초청되어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을 이틀에 걸쳐 연주하였다. 동월 27일에는 울산시민예술회관에서 울산시향과 협연하였으며 4월 2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2014 교향악축제'에서 울산시향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협연하여 2000여 관객들의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받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4월 23일 일신홀에서 독일의 작곡가인 York Hoeller를 위한 오마주 독주회를 가졌다. 5월 12일에는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에서 Schoenfield Clar. Trio 연주를 하였으며, 23일 성남 아트센터에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작품번호 466을 수원시향과 협연하였다. 러시아의 작곡가 소피아 구바이둘리나가 초청된 이번 '2014 서울국제음악제'에서는 구바이둘리나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그녀의 작품 'Introitus' 를 바로크 챔버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그리고 6월 13일에는 미국 인디애나음대 아우어홀에서 (Auer Piano Workshop) 베토벤과 York Hoeller의 프로그램으로 독주회를 가졌다.

| **현악전공 String Major** |

백주영 교수, 런던 카도간 홀에서 로열필과 협연- 펜데레츠키와 시마노프스키 협주곡 음반 출시

Prof. Ju-Young Baek, performed as a soloist with Royal Philharmonic Orchestra in the Cadogan Hall, London- released an album of concertos of Penderecki and Szymanowski.

'카잘스페스티벌 인 코리아'의 아티스트로 3월 23일 서울공연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펜데레츠키 6중주> 작품을 연주하였고, 4월 18일에는 '2014 교향악축제'의 폐막 공연의 협연자로 임헌정 지휘자가 이끄는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Op.77>을 협연하였다. 이 날 앙코르곡으로는 에른스트의 <한여름의 마지막 잠미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두번째 앙코르곡으로는 <에메이징 그레이스>와 성가곡 <주여 임하소서>를 연주하여 세월호 침몰사건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한편 5월 7일에는 영국 런던 카도간 홀에서 그레고리 노박이 지휘하는 로열필과 함께 협연하였고, 펜데레츠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시마노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한 음반을 출시하였다.

이경선 교수, 예술의전당에서 SNU 비르투오지 창단 연주 Prof. Kyung Sun Lee performed at the inaugural concert of SNU Virtuosi at the Seoul Arts Center.

예술의 전당 IBK홀에서 3월 22일 서울대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구성된 SNU 비르투오지의 창단 연주를 성황리에 마쳤고, 3월 28일에는 대전 KAIST 오디토리움 대강당에서 SNU 비르투오지의 초청 연주회를 가졌다. 4월 11일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화음챔버오케스트라 제 38회 정기 연주회에서 협연 및 리더를 하였으며 고양 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4월24일 열린 마티네 콘서트에 출연, 헨델-할보센과 브람스 작품 등을 연주하였으며 5월 2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음악대학 교수진 초청 실내악 콘서트를 서울대학교 콘서트홀에서 마쳤다. 6월 6일에는 더하우스콘서트 제 400회 특집연주에 초청되어 SNU 비루투오지와 함께 차이코프스키와 피아졸라의 작품을 연주하였고 6월 26일 금호아트홀에서 금호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에 출연하여 브루흐의 피아노 퀸텟을 연주하였다.

최은식 교수, 2014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이 이끄는 서울스프링 페스티벌 참여

Prof. Ensik Choi participated in the 2014 Seoul Spring Ensemble Festival lead by the violinist Dong-seok Kang.

4월 5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윤승업 지휘자가 이끄는 '2014 교향악 축제' 충남교향악단의 협연자로 <William Walton- Viola Concerto>를 연주하였고, 4월 12일에는 장천아트홀에서 'Just Viola Bach and Viola' 공연의 음악감독으로 Bach and Viola를 주제로 한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공연에서는 챔발리스트 오주희와 함께 <J.S. Bach- Sonata for Viola da Gamba No. 1, G Major> 곡을 연주하였고, 재학생들과 동문들이 함께 하여 Bach를 주제로 한 여러 비올라 앙상블을 선보였다. 또한 5월 13일부터 5월 25일까지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열린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에서는 국제적인 저명아티스트들과 함께 <Faure- Piano Quartet No.1>, <Schumann- Piano Quartet>, <Arnesky- Piano Quintet>을 연주하였다. 5월 17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M4one 챔버 앙상블의 '그린콘서트'에서는, 재능기부 아티스트로 참여하여 차이코프스키의 현악 4중주를 연주하였다.

기악과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

| **관악전공 Wind Major** |

김영률 교수, 2014 교향악축제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F. Strauss Horn Concerto C minor op.8> 협연

Prof. Young-Yul Kim performed F. Strauss's <Horn Concerto in c minor, Op. 8> with Busan Metropolitan Symphony Orchestra in the 2014 Orchestra Festival.

김영률 교수는 지난 4월 1일, 부산문화예술회관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F. Strauss Horn Concerto C minor op.8>을 협연을 하였다. 4월 3일 2014 교향악축제에서 리 신차오의 지휘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F. Strauss Horn Concerto C minor op.8>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협연을 하였으며, 5월 13일 제29회 아울로스목관오중주 정기연주회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가졌다.

최경환 교수, 타악그룹 4plus의 정기 연주회 공연 Prof. Kyung-Hwan Choi held the regular concert of <4plus> at Seoul Arts Center

지난 3월 3일 SNU Wind Ensemble과 함께 <2014학년도 서울대학교 입학식> 축하 연주 지휘를 하였다. 5월 23일 부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는 지휘자 김봉의 객원지휘와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도허티의 <팀파니와 관현악을 위한 'Raise the roof'>를 협연하여 대중으로부터 큰 관심과 찬사를 받았다. 5월 예정이었던 SNU Wind Band의 정기연주회 지휘는 비극의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는 의미로 취소되었다. 최경환 교수가 이끄는 타악그룹 4plus의 정기 연주회가 7월 19일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되었다. 8월 26일에는 SNU WIND ENSEMBLE을 이끌고 예술의 전당에서 2014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그리고 8월 28일에는 <서울대학교 하계 학위수여식>에서 SNU Wind Ensemble을 이끌고 연주를 지휘했다.

윤혜리 교수,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 시리즈로 작곡가 Bliss의 곡을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

Prof. Hyeri Yoon performed Bliss's piece as a part of Seoul Spring Festival Series at Sejong Performing Art Center.

3월 26일 김재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하우스 콘서트 독주회를 가졌다. 4월 7일부터는 중국 상해에서 마스터클래스와 연주 일정을 가졌고, 19일에는 한국 플루트교육자협회(KFFEA)의 앙상블 연주가 있었다. 5월 13일에는 아울로스 목관오중주의 연주를 예술의 전당에서, 14일에는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 시리즈로 작곡가 Bliss의 곡을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했다. 이어 16일에는 울산 시립교향악단과 이베르 협주곡을 연주하고 19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바버와 조지 크럼, 연이어 20일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카터의 곡으로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 무대를 가졌다. 22일에는 마드리실내악단에 플루트 수석으로 초청되어 영산아트홀에서 오케스트라 연주에 함께했다. 7월 19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프레파이에서, 7월 31일부터 8월 11일에는 프랑스 알프에서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했고 8월 2일부터 24일에는 부산에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의 플루티스트들이 함께하는 아시아플루트연맹(AFF)의 한국 지부장으로 마스터클래스와 렉처, 콩쿨의 한국 개최 행사를 주관했다.

국악과 Department of Korean Music

김우진 교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 조사위원으로 활동 Prof. Kim, Woojin worked as an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 for National-designated cultural assets and properties.

1월 2일에는 창작국악극 시상위원회, 자문위원, 1월 14일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합백당 종손가 소장 현금(양양금) 및 어은보(창랑보)) 조사위원(한국국학진흥원, 4월 문화재위원회 상정 예정)으로서 활동하였고, 2월 12일에는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회 위원(평택시)으로 선정되었다. 2월 25일에는 경기수준총보준회 주최로 "경기수준총보 보존과 전승" 학술 세미나에서, '춤 반주 음악에 관한 소고'(서한범)에 대한 논평을 하였으며, 2월 26일~27일에는 한국민요학회 주최로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아리랑의 전승과 변이" 의 주제로 열린 동계 학술대회에서 좌장으로서 활동하였다. 4월 11일에는 국립국악원에서 열린 "제34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거문고 부문 본선 심사위원을 맡았으며, 5월 10에는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및 한국국악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한국국악학회 "2014 상반기 국악학 전국대회"에서 좌장으로서 활동하였다. 5월 22에는 瑞巖文化財團 제4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심사위원을 맡았으며, 5월 23일에는 한국음악사학회 주최 '2014년 음악학술대회'의 종합토론에서 좌장으로서 활동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에서 출간된 <경기도의 토속민요>가 2014년 6월 27일 "공감도서(가칭) 학술부문 선정"(구명창: 우수학술도서)에서 예술분야 16종 중에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 책의 음원은 MBC 최상일 PD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채집한 민요음원을 제공해주었고, 서울대학교의 사업지원으로 손인애, 신은주 박사 등이 참여하였다.

양경숙 교수, SNU 해금앙상블 '핵움' 정기공연 지도 Prof. Kyung Sook Yang instructed the regular concert of SNU Haegum ensemble 'Hack-um'.

양경숙 교수는 4월 30일 콘서트홀에서 <SNU해금앙상블 '핵움' 정기공연>을 지도하여 서울대 해금전공 학부생들의 발전을 위해 이 공연을 이끌었다. 또한 관악합주, 정악합주 수업을 듣는 재학생들을 지도하여 5월 28일, 5월 31일에 콘서트홀에서 <종묘제례악>을 각각 무대에 올려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체득하도록 했다.

국악과

Department of Korean Music

정대석 교수, 뉴욕 맨해튼의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열리는 '뉴욕 한국음악 페스티벌 & 심포지엄'에서 <정대석류 거문고 산조> 연주
Prof. Jeong, Dae-Seok performed <Geomungo Sanjo in the style of Jeong Dae-Seok> in the 'New York Korean Music Festival & Symposium' hosted by the New York Asia Society.

3월 7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 <한국거문고양상별 정기연주회>에서 <거문고 합주를 위한 달무리>를 협연했다. 3월 28일에는 <양주풍류악회 풍류한마당>의 연주에 참여하였다. 여러 명인들과 함께 하는 이 연주회는 매월 한 번씩 A(크라운해태)연수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4월 11, 12일 간 뉴욕 맨해튼의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열리는 '뉴욕 한국음악 페스티벌 & 심포지엄'엔 전통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학술 세미나와 함께 산조 강연과 전통 성악공연이 진행됐다. 양일간 열린 이 행사 중 정대석 교수는 4월 11일에 <정대석류 거문고 산조>를 연주하였다.

임재원 교수, 국립국악원에서 정농악회 연주회 평조회상 한바탕을 연주
Prof. Lim, JaeWon performed in the Pyungjohoisang(Piri music) Concert 'Hanbatang' of Korean classical music society at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3월 13일 대전시립국악원에서 제143회 정기연주 - '신춘음악회' 국악관현악을 지휘하였으며, 4월 10일 국립국악원에서 정농악회 연주회 평조회상 한바탕을 연주하였다. 4월 17일-19일 '한국의 집'에서 2014년 명인·명창 상설공연 - '예인, 길을 묻다'에 초청되어 독주와 실내악을 연주하였으며, 5월 30일 국립국악원에서 대금연구회 제14회 정기연주회 실내악을 연주하였다. 6월 19일 대전시립국악원에서 전국협연공모 협주곡의 밤 - '젊은 국악' 국악관현악을 지휘하였다.

이지영 교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클래식 음악 시장인 국제아트마켓 Classical: Next에서 초청 연주
Prof. Yi, Ji-young was invited and performed at the international art market 'Classical: NEXT', the largest classical music market in the world, in Vienna, Austr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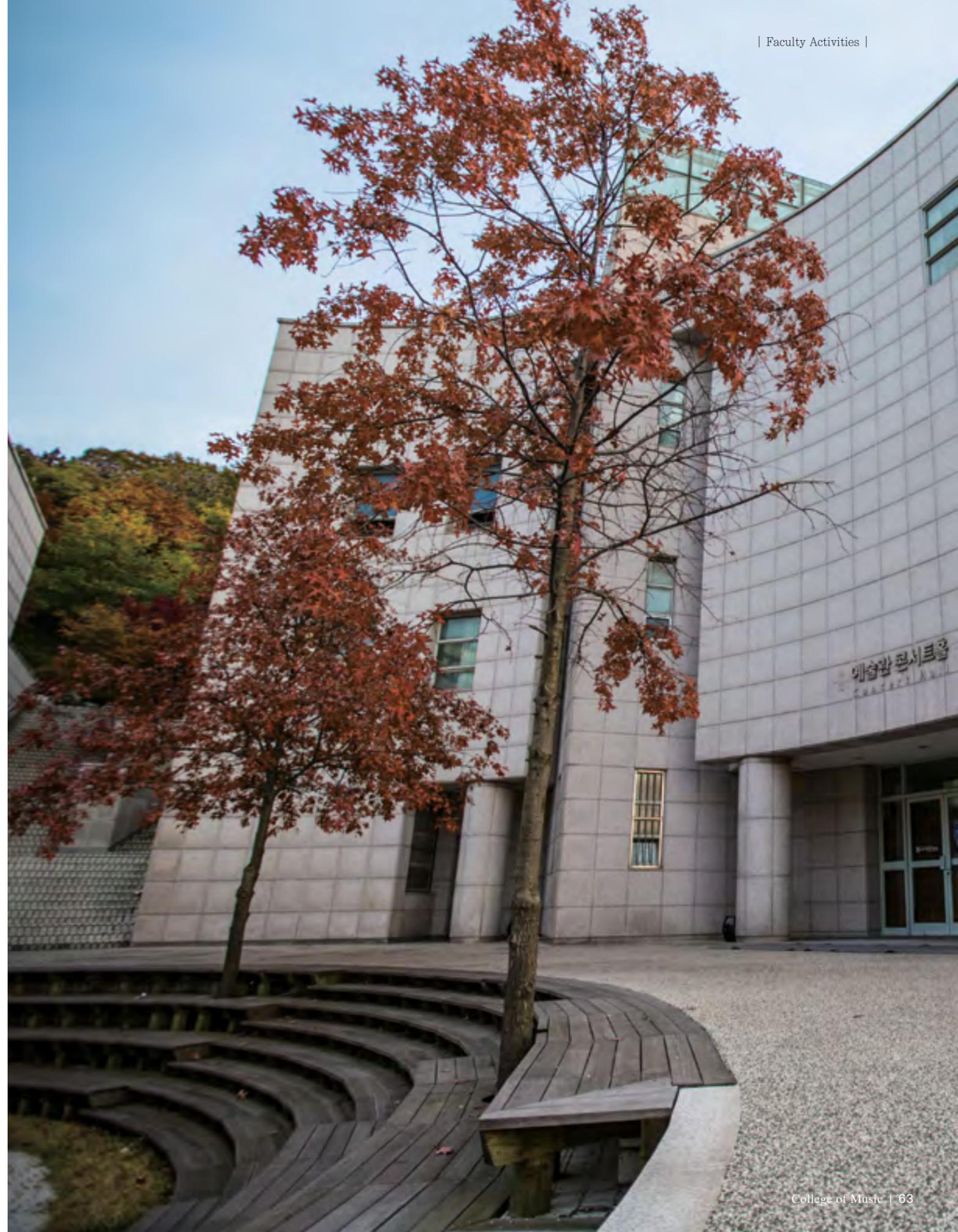
4월 11일 뉴욕 Asia Society에서 개최한 New York Korean Music Festival에서 초청받아 서공철 가야금 산조 독주를 하였다. 5월 16일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Konzerthaus, Berio Saal에서 열린 세계 최대 클래식 음악시장인 국제아트마켓 Classical: Next에서 초청 연주를 하였고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연주에서 이지영 교수는 임준희 작곡가의 '댄싱산조', '혼불-노래', '숨결', 원일 작곡가의 '바르도-꼭두'를 선보였다. 이지영 교수는 가야금연주단으로 전국에서 유일한 시립단체인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의 음악감독으로 2014년 4월~2016년 3월 임기로 재임명되었다.

김승근 교수,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WORK IN PROGRESS 행사 개최
Prof. Kim, Sngkn hosted "Work in Progress" at Mullae Art Space.

5월 11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본인이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KOREAN MUSIC PROJECT의 '창작음악연주회 : 전자음악' 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5월 29일 ~ 6월 1일에는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WORK IN PROGRESS 행사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새로운 창작음악의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핀첨성 교수, 브랜다이스 대학교에 방문하여 한국음악을 주제로 특강
Prof. Hilary V. Finchum-Sung, gave a speech on Korean Music as a guest speaker at Brandeis University, and at the Asia Society in New York.

3월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보스턴 한국문화협회)의 초대로 Brandeis University(브랜다이스 대학교)에 방문하여 한국음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고, 국악연주자들의 공연에서 사회를 보았다. 4월에는 New York Asia Society(뉴욕 아시아협회) 초대로 국악연주자 강은일, 이지영, 이태백, 정대석, 임현빈과 국악학자 김희선, 하주용과 함께 New York Sanjo Festival(뉴욕산조페스티벌)에 참여하였고, 세미나 발표와 산조공연 사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출판물로는 2014년 "Together This Moment: Kugak Teams and the Process of Composition"(in Contemporary Music in East Asia edited by Hee Sook Oh, 121-151,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이 있다.



2014학년도 1학기 주요행사

성악과

3월 26일 : Ivan Törzs 마스터클래스
 - 강사 : Maestro, Ivan Domzalski (지휘자, 이반 돔잘스키)
 4월 24일: Helmut Deutsch 마스터클래스

작곡과

***작곡전공**
 5월 23일
 STUDIO2021 : 소피아 구바이둘리나의 삶과 음악, 예술관 콘서트홀
 5월 26일
 STUDIO2021 : 구바이둘리나와 동시대 음악가들, 예술의전당 IBK홀

국악과

2월 17-21일: 2014 동계 음악캠프
 3월 7일: 신입생 환영 연주회
 3월 12일: 신입생 연주회
 3월 26일: 하와이주립대학 이병원 교수 특강
 4월 28일: 국악과 봄 정기 연주회
 4월 30일: 해금반 연주회
 5월 21일: 14학번 가야금반 연주회
 5월 28일: 중국문화대학 초청 워크샵
 5월 28일: 관악합주 종강연주
 5월 29일: 중국문화대학 초청 연주회
 5월 31일: 정악합주 종강연주
 6월 4일: 박사과정 레쳐 콘서트
 6월 23-27일: 국악과 여름특강(마스터클래스)

Main events of 2014 1st Semester

기악과

심포니오케스트라
 5월 28일: 심포니오케스트라 교내연주회
 6월 23일: 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필하모닉오케스트라

5월 27일: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피아노 전공

3월 27일 ~ 4월 14일: Eugene&Elisabeth Pridonoff Masterclass
 4월 4일: Timothy Ehlen Masterclass
 4월 30일: Lucas Wong Masterclass
 5월 30일: Edward Auer Masterclass
 6월 6일: Emanuel Ax Masterclass

*현악 전공

3월 24일: Prof. Grigory Kalinovsky Violin 마스터클래스
 4월 30일: Prof. Lee-Chin Siow Violin 마스터클래스
 4월 30일-5월 1일: Prof. Suren Bagratuni Cello 마스터클래스
 5월 9일: Prof. Sheila Browne Viola 마스터클래스
 5월 15일: Prof. Jaime Laredo Violin 마스터클래스
 5월 16일: SNU String Engsemble (공연장소: 예술관 콘서트홀)
 5월 27일: Prof. Federico Agostini Violin 마스터클래스
 5월 30일: Trio Ludwig Chamber 마스터클래스

*관악 전공

2월: <서울대학교 전기 학위수여식> 연주 - 지휘_최경환/연주_SNU Wind Ensemble
 3월: <서울대학교 입학식> 연주 - 지휘_최경환/연주_SNU Wind Ensemble
 3월 16일: Michel Lethiec Clarinet Master Class
 3월 18일: Falko Oesterle Percussion Master Class
 3월 19일: Mathieu Dufour Flute Master Class
 5월 17일: Nina Assimakopoulos Flute Master Class

5월 20일: Herve Joulain Horn Master Class
 5월 26일: Lee Agnes Breathing Master Class
 6월 5일: Sara Louvion Flute Master Class
 6월 19일: Paul Davies Flute Master Class
 8월 26일: <2014 SNU Wind Ensemble> 정기연주회-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_최경환/협연_Trumpet 성재창(서울대97, 충남대 교수)/
 연주_SNU Wind Ensemble
 8월: <서울대학교 후기 학위수여식> 연주-지휘_최경환/
 연주_SNU Wind Ensemble

2014학년도 2학기 주요행사

작곡과

***작곡 전공**
 10월 7일
 STUDIO2021 : Ensemble Aventure 초청 콘서트
 - 한국 작곡가의 밤, 예술관 콘서트홀
 STUDIO2021 : Ensemble Aventure 초청 콘서트
 - 독일 작곡가의 밤, 예술관 콘서트홀
 10월 18일
 STUDIO2021 : Sukhi Kang at 80, 예술관 콘서트홀

기악과

***관악 전공**
 10월 6일: Flute & Piano Master Class
 11월 11일: 교양강좌 Saxophone 정기연주회
 11월 14일: 김포음악협회 주관 김포아트홀
 <SNU Symphonic Band> 초청 연주회
 지휘_최경환/연주_SNU Wind Ensemble

*현악 전공

11월 16일: Spirit of SNU Strings IV
 (공연장소: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

국악과

9월: 국악과 협연연주회
 11월 11일: 국악과 정기연주회
 11월: 국악과 대학원 연주회

Main events of 2014 2nd Semester

화요음악회

9월~11월 중 공연예정

병원음악회

11월~12월 중 공연예정



빨간 우체통

| 편집위원 한마디 |

잊지 못할 추억,
기억 그리고
또 다른 시작
_석영

행복의 나라로!
_민영

소리에 담긴
마음을 전하는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_수지

음악대학 소식지
화이팅!
_재윤

만남과 설렘
땀방울과 열매
_가영



어디에? 54동 음악대학 1층 로비

<https://m.facebook.com/snumusicpost>

페이스북 검색창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빨간우체통" 입력하시면 됩니다.

음악대학 소식 제14호 | 2014년 9월 1일 발행

발행인_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김귀현

기획_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부학장 이지영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_ 오희숙 기획홍보실장(작곡과 교수)

편집위원_ 하가영 기획홍보실 조교

강수지 작곡과 이론전공

김석영 작곡과 이론전공

손문영 작곡과 이론전공

이재윤 작곡과 이론전공

영문번역_ 스노버 고운 작곡과 이론전공

사진_ 249 스튜디오

디자인_ 디자인아프리카 02 · 6010 · 0907

인쇄_ 진우티피에스

College of Music Magazine Vol. 14

Publisher_ Prof. Kwi-hyun Kim, Dean of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r_ Prof. Ji-young Yi, Associate Dean of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Editorial Committee

Editor_ Prof. Oh, Hee Sook, Department of Composition, Chair of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 PR

Editorial Board_ Ha Kayoung, Officer of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 PR

Su Ji Kang

Seok Young Kim

Moonyeong Son

Jaeyoon Lee

English Translation_ Gowoon Kim

Photo_ 249 Studio

Design_ Design in Africa

printing_ JINWOO TPS